



성 폭력

JOUISSANCE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 08호

aftermath

1. 끔찍하거나 불운한 사건으로부터 이어지거나 유래한 그 무엇
2. 목초밭의 풀베기 이후에 새롭게 자라는 풀의 성장



contents

00. 8호를 열며 - 야생, 수시아

01. 기획 <성폭력>

.The thing that I need - Dnool

.아무 것도 아닌 일 - 준코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러나 들릴 듯 말 듯 말하기 - 시드

. 잊고 싶어 맞는다 - sakana

. (ing) - 야생싸가지

. 다시 - drybaby

. 계속되는 강의실 내 성폭력 - sseam

. 반성폭력 담론의 확장을 바라보며 - 찌끼

. 서울대학교 반성폭력 운동, 새로운 시작: 관악 반성폭력 운동사 정리,

자치규약과 학칙을 중심으로 - 야생싸가지

02. 고정코너

[인터뷰] 횡내라 여성운동!: 어떤 언니를 만나다. - 야생싸가지

[영화평] <In the Cut>, 세 가지 시선으로 읽기 - 수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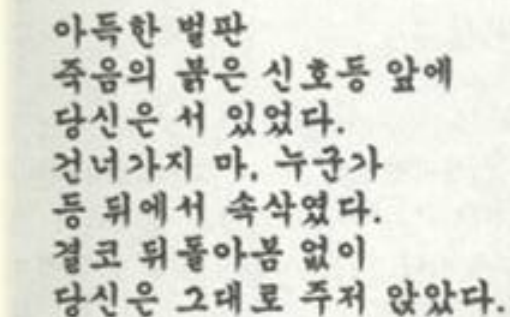
[만화평] 아즈망가 대왕 - 찌끼

[서평] 아주 오래 된 농담 - 살아보자

[음악이야기] 재회 - drybaby

[광고] 쥘이쌍스! 책으로 만나요!

03. 편집후기



아득한 벌판
죽음의 붉은 신호등 앞에
당신은 서 있었다.
건너가지 마, 누군가
등 뒤에서 속삭였다.
결코 뒤돌아봄 없이
당신은 그대로 주저 앉았다.

최승자, <술리테어> 中

기획 성폭력

"자신들과 공감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

수잔 브라이슨,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가>

어느 때보다 힘들게 쓰여진 글들이다. 상처를 드러내어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은 어쩌면 더욱 아픈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글쓰기는 더욱 잔혹하고 아프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그간 쥐어쥘스 사람들이 글을 써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어떤 글이 나오는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다. 사실 그 다짐이 얼마만큼이나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주의자가 고민하는 성폭력이 결코 쉽게 나올만한 글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글을 마음대로 펴고 내고 도망가 버리는 그녀들의 속을 모르겠지만, 그녀들이 입을 열고 말했을 때에는 여성주의자로서 편집장으로서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내가 같이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이다. 사실 나라고 해서 모든 글을 똑같은 수위로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같은 여성주의자라고 해도 각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과 공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나에게도 비교적 쉽게 다가오는 글이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글도 있다. 그러나 그 글을 쓴 그녀들의 치열함만은 쉽게 말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어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만 가져가고 고민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적어도 나는 우리의 글에 그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여성주의, 그것이면 족하다. 상식 없는 자들의 오만함이란 이런 것이다. 더욱 좋은 글로, 더욱 좋은 책으로 만나기를.

성폭력의 경험은 심각한 자아분열을 초래한다. 따라서 형이상학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반대하여 과연 그런 개인 정체성이 있기는 한지 묻고 있는 피해자의 예를 들면서 성폭력과 성폭력이 불러 일으키는 여파는 학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철학적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어떤 철학도 성폭력에 대해 사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수잔 브라이슨은 옳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지닌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은 생존자(성폭력의 기억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에서)가 성폭력의 피해를 드러내기조차 힘들게 구성되어 있다. 생존자가 어렵사리 성폭력의 기억을 되살리고 발화를 선택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도, 이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편견이 들어 있는 사회적 시선은 그의 입을 막는 2차 가해를 저지른다. 우선 그의 말을 여간해선 믿지도 않을뿐더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잘못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낳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경험에 대해 기술한다는 것은 비단 (남들이 해주지 않는) 자기치유 혹은 (매우 어려운) 자아고백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폭력이 실재하고 있고 당선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리라 믿었던 장소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이다.

Dnool은 절제된 슬픈 선으로 성폭력 피해자 그 이후를 그려내었고 준코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묻혀져버린 기억에 대한 것을 기술했다. sseam은 대학의 강의실 역시 결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야생씨가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주변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했다. drybaby는 한 경험 성폭력이 발생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sakana는 성폭력의 공포에 대한 다른 기억을 서술했다. 목에 자물쇠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시드는 생존자로서의 말하기가 어떠한 것인지 모호한 문제로 증명해보였고, 짝끼는 기존 반성폭력 담론이 놓쳐왔던 고민들을 짚어내고 있다. 끝으로 야생씨가지는 최근 학내에서 벌어지는 반성폭력 학칙제정 운동과 맞물려 관악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다.

성폭력을 기획으로 하자고 했을 때 내부에서는 의견들이 상당 부분 엇갈렸다. 기억을 되살려 글을 쓰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장 하나하나를 미어지는 가슴으로 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신중하게 읽어주시기를 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부디.

The thing that I need by Dnool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그는 나를 예뻐해 주던 동네 오빠이자 민 천척이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와 같이 놀아주었고,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1등 해서 받았다는, 연필이나 공책을 주기도 했다. 학교에서 배운 재미있는 놀이들도 가르쳐 주었고 번쩍 안아서 목마를 태워주기도 했다. 부모님들끼리도 꽤나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는 거의 매일 그의 집에 들락날락하였고, 주로 그의 방에서 함께 놀았다. 나는 그가 좋았다. 그 집의 또 다른 식구인 싸늘한 언니와 달리 내게 살갑게 대해주었고, 재미있었다. 선물도 많이 주었고 노래도 불러주었고.

그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여전히 유치원생이던 어느 날, 나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의 방에서 놀고 있었다. 그의 책상 서랍을 뒤적였고, 그의 공책에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내게 '보여 달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몰랐다. 양 다리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그 기관은 내게는 셔츠 아래 숨겨져 있는 배꼽이나, 양말 밑에 있는 복숭아 뼈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기에 그저 옷을 벗는 것이 부끄러웠을 뿐이다. 왜? 그냥 식의 대화가 오갔던 것도 같다. 약간의 주저함과 망설임 끝에 나는 그곳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날은 그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여전히 그 집을 거의 매일 드나들었고, 항상 그와 함께 놀았다. 하지만 단힌 방문 안에서 한 번씩 그의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단지 보여달라,는 요구는 만져보겠다, 로,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불에 나란히 누워서 만지게 해 달라. 그의 말은 언제나 부탁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부탁이 아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 줄은 몰랐고, 오빠도 어느 때와 다름없었다. 내가 옷 안에 손이 들어가고, 내 안을 휘젓고 다시 손이 나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같았다. 그 시간은 긴 시간 중의 단지 짧은 한 순간이었고, 나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서 오빠가 빨리 끝내기를 그리고 다시 나랑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를 기다리면 되었다. 열심히 손을 움직이던

열심히 손을 움직이던 오빠가 멈추면, 비릿한 내용과 함께 내게서 손이 나는 것이 느껴지면 그 날은 끝난거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만 갔지만,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느낌 역시 같이 커지고 있었다. 그 집에 가는 일이, 오빠가 방으로 부르는 것이 언젠가부터 즐겁지 않았다. 아니, 여전히 즐거웠지만, 그건 싫었다. 언제 오빠가 옷을 벗으라고 할지 몰라서 항상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렇게 일년여가 흘렀고, 어느 날 나는 정말 조심스레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가 자꾸 만진다. 예상대로 엄마는 크게 놀란다. 그 외에 다른 건 안 했어? 응? 다른 거 어떤 거? 뭐 다른 거 안 했냐고 만지기만 하고? 안 했어. 자꾸만 방어를 하게 되는 나를 느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만진 것 외에는,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했다. 엄마는 내게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앞으로 오빠가 그런 얘기하면 하지 마. 슬쩍 겁이 난 것은 큰일이었나? 내가 잘못 한 건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 날 그 집에서도 엄마는 그 얘기를 내내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거의 집에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 집 아주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매우 미안해하며, 연신, 그거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거 말고 아무 일도 없는 게 뭔지 알리 없던 나는 그저 겁이 날 뿐이었다. 아주머니가 오빠를 혼낼까봐, 오빠가 더 이상 나랑 안 놀아줄까봐, 배웅 인사를 하러 나온 오빠에게 엄마는 슬쩍 웃으며 말을 꺼냈다. ##너, 자꾸 @@만진다며, 그러지 마. 정말 웃으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듯. 오빠 역시 머쓱해 하면서도 네, 하고 슬쩍 웃었다. 그걸로 끝이었다. 오빠의 부모도 그럼 안 되지, 었을 뿐. 그 이상의 반응들은 없었다. 다행이었다.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구나. 그냥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별.거.아.닌.일. 나중에 다시 오빠를 만났을 때, 오빠는 왜 그런 걸 얘기해! 라며 투덜거렸을 뿐 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사를 하고 학교에 들어갔고, 그 오빠와의 만남도 뜸해졌다. 가끔씩 그 집에 찾아가서 놀기는 하지만 이제 오빠 방보다는 언니 방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노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리고 예전의 기억은 점점 잊혀졌다. 별 거 아닌 그 일은,



어릴 적 엄마에게 크게 혼났던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듯 그렇게 희미해졌다.

그 일이 다시 생각 난 것은 중학교 때, 소위 사춘기가 되었을 때였다. 성적인 행위들을 한두 개씩 알아가고, 그 때 그것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해지는 마음을 '뭐 강간은 아니었잖아. 그럼 아.무.것.도.아.니.지. 뭐' 하며 달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초경을 할 때, 나는 생리가 없었다.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성교육을 몇 번이나 받았음에도 나는 과거의 그 일이 자꾸 생각났다. 혹시 그 때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남보다 늦은 초경을 했을 때의 그 안도감. 하지만 그 이후 이어지는 불규칙한 생리는 자꾸만 과거의 기억과 몸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수반했다. 과거 일은 다 끝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자각하고 있었다. 그게 지금의 내 몸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임에 불구하고,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이 먼저 떠오르는지는 모르겠다.

가끔씩 가족들끼리 오빠의 얘기가 나올 때가 있다. 아빠는 그나마 그 일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 나와 엄마는 침묵을 지켰다. 엄마는 내가 그 일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어쩌면 엄마는 정말 그 일을 잊은 건지도 모른다. 식탁머리에서 나오는 오빠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라는 칭찬 그리고 이미 결혼하고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뿐 이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비릿한 내음, 일이 끝나면 냄새를 없앤다며 방에 뿌려대던 향수 냄새. 가끔은 내가 머릿속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모두들 그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 일이 내가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지금 와서 그 일은 솔직히 내게 '피해'라기 보다 일종의 '해프닝'에 가까운 일로 생각 될 뿐이다. 하지만 내 기억을 부정하게 만드는 굳건한 침묵은 아직도 오빠에 대한 나의 기억을 계속 내 속에 담아두도록 만들고 있다. 만약 내가 당시 어린 아이



가 아닌 십대 소녀였다면? 그가 사춘기 소년이 아닌 다 큰 성인이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강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치유의 과정을 생략한 채,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을까.

그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한참 성적 호기심이 활발할 때인 사춘기 소년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강간도 아니었고, 그것을 당한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기에 그것을 '피해'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별일 아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다. 다만 나의 예민함과 머리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그 기억만 점점 불쌍해 질 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기억 말이다.



I belong to here where no-one cares and no-one loves,
no light no air to live in.

타인을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쓴다고 해서 내 사랑 (타인)이 나를 사랑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글쓰기가 무언가를 보상해주지도, 숭고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내가 있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글쓰기의 시작이다.

- Roland Barthes, "사랑의 단상" 중

사람들은 너무 쉽다. 홀로그램처럼 영상막에 비친 그 아슬아슬한 영상은 조금만 흔들어도 깨져 버릴 것만 같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건, 당신의 말, 생각없이 흘러지는 그 파편.

도시의 복두칠성을 바라보다 눈물 몇 줄기가 흘렀다. 분명 아주 오랜 옛날 길 잃은 목동의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을 적 별들은 도시의 죽은 밤하늘에서는 그 누구도 약미를 찾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속에서 나만, 나 혼자만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문명의 빛에 익숙해져버린 두 눈이 밤하늘의 별빛에 적응하기 위해선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듯, 나는 잠시 멈춰서서 가만히 하늘을 응시했고 조금 있어 감춰진 별들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건 마치 묻혀진 내 기억과도 같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할까.

03/301 in Chongdam

롤랑 바르트의 저 빛나는 문장처럼, 나 역시 타인을 위해 글을 쓰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그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흥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게 분명한 저 자아에게 나는 손을 내밀고 있다.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과연 무엇의 영향인지, 너무도 쉽게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면할 때마다 기분이 먹먹해진다. 실재하는 아픔을 표상해야만 하는 그 단어가 그

힘겨운 무게를 잃고서 사람들의 입 사이로, 자보 위에서, 술자리에서 미친 춤을 추며 날아다닌다. 수잔 손탁이 은유로서의 질병을 이야기했다면, 그 단어가 역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직유로써 마구 소용된다. 그 단어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 그러도 쿨한가.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한참을 생각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난 그때에도 나는 100% 이해할 수 없었다.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명징하게 알아차렸을 때 나는 울어야만 했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나의 경험의 결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내 생애 처음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수백 번을 되뇌어도 결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절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누군가 내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새하얀 거짓말이라도 건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골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그것의 실체가 나를 향한 '폭력'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기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나를 부정했고 내 몸을 지주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시선이 나를 단죄하는 것만 같아 식은 땀이 흘렀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가해자들 중의 한 사람을 어느 날 우연히 만났고 '그땐 우리 둘 다 어렸잖아'.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오랜만에 만난 내게 그 기억을 환기시켜 주었다. 추하게 일그러지던 입술 사이에서 흘러 나오던 '우리'라는 말에 나는 얼굴이 굳어졌고 그 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내 부은 눈을 보고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 일들은 한순간 갑자기 내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폭력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한 나이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다. 어느 날 둔탁한 흥기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은 '사건'이 아니라 '인식'이었다. 내 트라우마의 환부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억 깊은 곳에서 썩은 움을 내며 끓고 있었다. 그를 인식하기전까지 나는 아무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그러나 인식 이후로 나는 도저히 예전과 같아질 수 없었다. 기억, 기억은 새파란 면도날처럼 무심히도 내 심장을 긁는다. 길을 가다가도 우연한 계기가 불러 일으키는 기억과 마주하게 되면, 정신을 차릴 때쯤엔 내 손에 심장에서 빨갛게 배어져 나온 살점이 들려 있었다.

모든 트라우마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인식의 날 이후로 물려든 유년의 기억들은 숨쉬기조차 힘들게 나를 조여왔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친오빠는 재혼가정에서 계부와 형들 사이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가출을 일삼았지만, 나는 딸이어서 그것도 남자아이가 특실한 집안에 유일한 여자아이여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가 그 이전까지 내 머리에 각인된 시나리오였다면, 실은 내가 사랑(그걸 '사랑'이라 지칭할 수 있다면)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딸이 가지는 '여성'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친오빠는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러나 조용하고 움습했던 이층집에서 어린 나는 그들에게서 성적으로 (온유로서) '뭍혀 있었다'. 새 아빠, 그리고 나이가 많았던 세 오빠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었다. 시간은 더 이상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숲 곳곳에 잠복해 있는 지뢰처럼 드문드문 내 발을 묶어 놓는다. 초등학교 2학년 국어 시간에 내가 썼던 글의 주제는 '계모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는 것이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같은 동화나 TV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계모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지적하고 내 엄마의 예를 들면서 계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자고 주장했던 당찬 글이었다. 어렸지만, 엄마가 재혼가정에서 새 남편의 아들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또한 얼마나 힘든지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엄마는 끝까지 견뎌내지는 못했고 두 번째 이혼을 했지만, 한밤중에 이삿짐을 싸던 나는 그날로 문자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내가 알고 있던 '나'가 전적으로 거짓이었음을 명징하게 알게 된다는 것, 그건 단지 말로써 표현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괴로운 일이다.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바로 어제까지 그들을 추억했던 내가 오늘은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지는 일,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건 내 기억에 침을 뱉는 것과도 같았다. 내 평생 '가족'이라는 집단과 유일하게 같이 살아본 시기였는데, 내 기억속에서 유일하게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 곳엔 근본적으로 애정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가끔씩 나는 대단한 착각을 하곤 한다. 그나마 내게도 행복한 유년은 있었다고, 나는 믿고 싶어진다. 어느 푸른 풀밭에서 웃고 있는 그들과 내가 찍었던 어떤 옛날 사진처럼 그냥 그게 내 유년의 기억이기를 바랄 때가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대한 신기루 같은 영상 위로 그 얼굴들이 겹칠 때면 순식간에 입 안은 새하얗게 마르기 시작하고 나는 새어나올 수 없는 소리를 지른다. 시간이 갈수록 일그러지는 얼굴을 하고 있는 나는 밤에는 잠에 이르지 못하고 낮에는 태양이 너무 무섭다. 나는 도저히 그 일들을, 그리고 그 기억들이 내게 미친 영향을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글을 쓰는 것도 한참이나 망설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의 암묵적인 억압에도 그 탓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 일들을 그리고 나의 고통들을 엄마가 알게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혹시나 당신 탓이라고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동안 성지식이 없던 나로서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불임이라고도 생각했다. 뭔가 내 몸 한 구석에 찔찔한 벌레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수치심에 더해진 죄책감 때문에 결코 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도 생각했다. 사랑해서도 안 된다고 자학했겠지. 그리고 성인이 되어 정말로 내 모든 세포가 사랑하고 있다고 여겨진 사람을 만나 처음으로 같이 잤을 때 나는, 울었다. 그때 그 감정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어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우선은 내가 부정해왔던 내 몸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했다는 게 맞을 것이다. 나방처럼 물려들었던 기억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딱 1년 전, 엄마의 이혼 이후로 연락이 뜸한 사람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나를 아직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과거는 여유롭게 흐르는 강물에 떠 내려 보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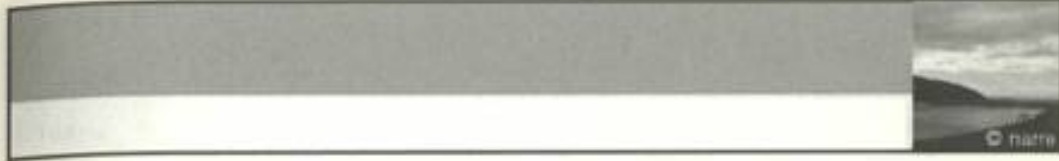
비단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나는 결혼 같은 거 못 할 거 같은데. 허겁지겁 도착한 그 곳에는 마주 치기 싫었던 기억들이 약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가여운 짐승 하나를 흔들어 깨웠다. 이젠 집에 가야 하지 않겠어.

높고 넓은 천장, 저마다 옷을 차려 입은 사람들, 풍성하고 새하얀 웨딩 드레스와 길게 뻗은 왕벚나무 색 융단, 검은 턱시도, 하얀 웨딩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 피부에 소름이 자르르 돋았다. 축의금을 건네는 사람과 봉투를 해어 보는 사람과 총액을 계산하는 사람, 피로연장에 널려 있는 시체 같은 고깃덩어리들, 찢어 버리고 싶던 곱디 고운 한복, 가문과 친척들이 위시하는 혈연이라는 집단에의 염증. 사람들은 나를 낯설어 했다. 나도 당신들이 싫어요 억지로라도 늦게 오고 싶었다구요. 독약이라도 삼키는 듯 권해주는 음식물을 힘겹게 목 안으로 밀어 넣으며 머리 속으로는 그것들을 사람들 얼굴에다 뿔어 내는 상상을 했다. 내 앞에선 꼬리를 살살 흔들며 내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들, 비갯덩어리들.

그곳을 나서려는데 아직도 정문엔 아까의 짐승이 숨어 있었다. 아직도 집어 가지 못하는 어린 것. 갈 곳이 없어 해매는 나의 기억들.

어리석은 나의 기억같은 짐승들.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이제 그만 이디론가 가야 하지 않겠어. 여기서 뭐하고 있니.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염증부터 든다. 아무래도 자아에 심각한 분열이 생긴 것 같다. 자신의 행복 혹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원 궤도 바깥에 존재하는 나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 나는 어차피 저 원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지, 내가 들어가면 그 크기만큼 누군가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나



까. 그 처연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굳이 원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세상은 '상처받지 않은 관찰자의 세계관'으로 움직이는 곳이었다.

나는 아직도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세계는 나에게 공포였다. 나는 독 안에 든 쥐였고,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하는 쥐였고, 그래서 그 공포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지레 질러 먼저 앙앙대고 위협하는 쥐였다. 어쩌면 그 때문에 세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오 한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 최승자 <악순환>



누굴 만나는 것이 이때만큼 편한 때도 없었다. '한 때 그러는 것이다'라는 주문에 쉽게 걸릴 수 있었으니까. 나는 흥을 만났다. 그리고 헤어졌다. 2학년이 되었고, 반도 갈라서 그야말로 깨-끗-이 헤어졌다.

뒷이야기가 많은 반, 공학에 합반, 수학여행을 왔다. A가 B를 좋아했는데 B는 C를 좋아하고, 또 C는 A랑 친구고 하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당사자들을 빼놓고서 그린 동그란 원, 안팎으로 지루하게 늘어지고 있다. 흥분해서 어머, 웬일이니, 하는 애들의 표정에서 눈을 떼고, 발톱 끝을 뜯는다. A-B든, B-C든 나한테는 별로 자연스러운 조합이 아니다. 침대 옆에 붙은 커튼을 달고 옷을 갈아입는다. 재미없다.

방문이 열리고 갑자기 누군가 커튼을 들춘다. 흥이다! 어쩐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아이의 표정에 막연히 겁이 난다. 그래, '겁'이 난다.

"애기 좀 하자."

등으로 찬 기운이 싸---악 지난다. 손금을 따라 물이 땀다.

"... 싫어."

손도 등도 싸늘해진다. 흥은 잠자코 서 있다. 어머, 웬일이니, 로 시끄럽던 목소리들이 찾아든다. 심장 아랫부분이 쿵쿵 쑤셔 온다. 보지마, 여길 보지마.

"나랑 같이 가서 자자."

한 글자, 한 글자가 귀에서 얼어붙어 쾅 소리를 낸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 돌아버리겠네, 라는 말을 수없이 속에 새긴다. 아찔해진다. 는 말이 딱 맞다.

"싫어, 너 빨리 가. 미쳤나?"

계속 같이 자러 가자는 흥. 평소보다 새된 억양으로 말하고 있는 나. 흥은 내 팔목을 붙든다. 팔목에 맥박이 두근거린다.



"같이 자자, 응? 가자."

흥의 말도 안되는 당장 지금보다, 앞으로 남은 2년이 무게도 모르게 눌러 온다. 어느 게시판에서인가 본, 알게 된 이후 모두가 순간 움찔, 하는 표정을 지으며 피해다니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느릿느릿 머릿속을 돈다. 밤에 집에 가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흥의 모습도 보인다. 나는 말할 기운도, 잡힌 팔목을 빼낼 기운도 없다. 주위에 찾아들던 목소리들은 이미 없어졌다. 조용, 보지 말란 말이야..

평소 흥을 못마땅해했던-대체 왜 흥과 내가 붙어다니는 건지 의아해했던-나의 친구가 흥을 보낸다. 싫다는 거 안보이나, 어서 니 방으로 가. 의외로 흥은(그래 너도 무서웠을꺼야) 금방 등을 보인다. 나는 냉정을 찾는다. (찾아야만 하니까) 흥이 미친년이다, 왜 저러는 지 정말 모르겠다, 라면 나는 안전하다. (라는 순간적인 판단) 집 앞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흥의 행동은 당장은 아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몇 날을 흥이 다시 우리 반에 찾아오는 게 아닐까,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게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보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가는 일이, 학교로 떠는 한 걸음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던 나날이었다. 그래 그 이후로 흥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흥과의 기억을 좋은 부분만, 그저 어렸을 적 누굴 만났던, 가끔 곱씹을만한 기억으로 두고서 말았다.

얼마든지 성폭력에 노출될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이미 그 자체를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테지만, (중요한 건 명명이 아니었다) 그보다 무섭고 겁이 났던 건 아웃팅에 대한 공포였다. 아니, '그보다'라기 보다는 그 공포뿐이었다. 그 아이가 옛날의 사실을 매개로 확 붙어버린다면



나를 끌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단지 저 하나의 상황뿐이었지만 그런 류의 시나리오들은 심하게 자유롭게 내 머릿속을 들락거렸다. 상대가 남자였을 때 드는, 어떤 직접적인 내 '몸'에 대한 폭력에 대한 공포와는 또 다른 맥락이었다. 그러면서도, 한 때 좋아했던 아이를 미친년으로 몰아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했던 것도 미칠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밀어두고 만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고 또, 그 상황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다만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두렵고 두려웠을 뿐. 지금은? 지금은 슬프기만 하다. 젠장 우리는 왜.

narre



I play dead. It stops the hurting. I play dead. And the hurting stops.

(ing)

야생새가지

쓰러질 때까지 달려 - 사쿠라코 리

신발끈이 자꾸만 풀어진단다. 느슨하게 묶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단단하게 매도 자꾸만 풀어진단다. 이미 늦은 수업은 조금 더 늦기로 하고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땀다.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흐르는 학교와 그 속을 정신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해마다 아무 것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 조그맣게 속삭인다. '어쩐지 오늘은 재수가 없을 줄 알았어.'

그것은 조금 전 과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신입생들의 목소리 사이로 나를 스쳐지나간 어떤 목소리 때문이었다. 순간 과거 속에 가만히 묻어둔 어떤 기억이 터져나왔다. 내가 황급히 돌아봤을 때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애가.

"안녕. 잘 있었어?"

사람들은 때때로 지나쳐가는 슬픔에 관해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닐 때 애써 피하려 한다. 침묵 속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양, 그 때에 그 곳에 마치 아무 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암묵적으로 주고받은 침묵의 카르텔로 질끈 동여매여져 있다. 퇴색되고 바랜 기억의 조각들이 마음대로 얹혀져 이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 갑자기 그 암묵적 계약은 푼 하고 풀려버린다. 그 애가 돌아왔던 것이다.

"어, 어? 안녕! 일이 있어서, 가 봐야 되거든. 나중에 보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가방을 뒤희쳐나왔다. 급한 일 따위는 없었는데도, 나중에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이런, 신발끈이 또 풀렸다.

그것은 - 지나간 - 이야기이다. 었다. 었을 것이다.

그것은 성폭력 사건이었다. 성폭력 사례집에서 읽던 것과 정말 토씨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다. 여자는 술에 취해있었고 남자는 그런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었다고 한다. 그게 전부다.

".. 당..당한 것 같아."

그 일을 내게 말할 때 그 애는 굳이 주어를 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애는 '당한 것 같아'라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자꾸만 끊어지던 목소리를 붙잡기 위해 나는 안간힘을 썼다. '너 기다려. 나 지금 갈게.'라고 말하고 무작정 뛰어갔다. 그 애의 집으로 가는 동안 떠들썩한 술자리에 그 애가 나오지 않게 된 몇 일 간, 그 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몇 일 간, 그 애는 며칠간 혼자서 이 말을 곱씹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단지 이 말을 하기 위해 그녀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중요한 말들은 다 빼버리고 이야기를 한다. 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듣고 봐온 것인데도 바보처럼 '뭘'이라고 말해버렸다. 사실 '누가'라고도 물을 뻔했지만,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 애의 자취방에서 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멍하니 정신을 놓아버린 그 애를 바라보며 결국 그 날 나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그 애는 계속 울기만 하고 나는 그동안 배운 건 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책들은, 언니들의 조언과 큰소리 치는 자신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니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되풀이 할 뿐. 니 잘못이 아니야, 니 잘못이 아니야.

자신이 당한 부당한 상처에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만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없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그 경험이 자신의 입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 애가 과에 나오지 않던 그동안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리고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그 높은 멋대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애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가 그 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선배들을 만나고 다녔다. 어느새 조금씩 각자의 공상에 살을 붙여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내가 의식적으로 듣지 않으려던 그런 이야기들은 그 애의 상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고 싶은'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흘러가는 상상만으로도 벽찬 작은 방 한켠에서 그 애는 몇 날 몇 일을 생각했을 것이다. 끊임없이 그 일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작은 방 안에서 내 친구는 미쳤던 거다. 나는 수백번 그것이 '니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었던 걸까.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지나가는 미친놈에게 한 대 맞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일이라면 왜 그 애는 멍하게 풀린 눈으로 그 일을 감추기 위해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걸까.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왜 너는 하루에도 몇 십 통 씩 내게 전화를 하며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까.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알면?"

그 애는 사건을 처리하자는 나의 말에, 최소한 사과만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나의 말에 이렇게 말했다. 해결을 포기한 그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가해자에게 돌리지 못한 분노를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는 일이었다. 그 작은 방에서 그 애는 미쳐갔는데 그녀는 그걸 풀 대상이 필요했으니까. 그 애가 외부와의 통로를 놓아버리는 만큼 그 애는 더욱 많은 부분을 나에게 매달렸다.

나는 지쳐갔다. 그 애가 지치는 것만큼 나도 지쳐갔다. 서서히 삶을 놓아버리는 그 애의 옆에서 나는 어느새 지쳐갔던 거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답답함. 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의 자격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 옆에서 그 애의 불안정함을 지켜보며 자신의 무책임과 무능을 감추고, 안수복 불안해지는 그 애의 짜증을 들을 수도 듣지 않을 수도 없을. 나는 알아야 했는데, 그때의 나에게는 도저히 귀를 틀어막고 작은 방에 틀어박힌 그 애를 삶으로 끌어 올려줄 여력이 없었다. 스스로 놓아버린 그 애를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어느 날 그 애가 "나, 죽을까?"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당장 "미쳤어?"라고 말했지만, 나는 마음 한편에서 '그게 나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 절반은 그 애를 위해(위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절반은 나를 위해서, 나는 그 애가 아니었던 거다. 그리고 그 애의 상처는 나의 상처가 아니었던 거다. 하지만 나는 그 애가 아닌걸, 나는 여성주의자였는데, 나는 성폭력을 해결해야 했는데, 나는 그 애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 애는 자신의 상처를 모두 이해해주기를 바랬는데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없는 것 투성이, 스스로를 몰아 세워가며 나는, 그 애는 서서히 지쳐갔다. 그리고 어긋나는 감정들 사이로, 점점 더 흐려지는 그 애의 두 눈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었을 때, 나는 이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상처를 미숙한 실수로 생각하기로 했다. 좀더 잘했더라면 없어도 되었을 그런 상처. 그리고 나는 다시 일상을 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었다. 아니었을 것이다.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아. 다만 치유되는 척 하는 거지. 아무리 굵고 튼튼한 실로 봉합해두어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탁'하고 벌어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피를 흘리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

그 애가 사라지기 전, 작은 방에서 그 애가 이런 말 할 때 나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간간히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면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여자들이 피던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지진 그 공간에서, 끊임없이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목소리들 속에 자꾸만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는 내 모든 신경을 촉각에 기울여야 했다.



절대 성폭력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애 앞에서 여성주의자인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 순간에 느꼈던 무기력감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내 상처로 남아있다. 시간이 좀 흐른 뒤 나는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혹은 성폭력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로 자신을 몰아세웠지만, 결국 피해자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는 좀 더 더 강해졌을까. 나는 좀 더 강해졌을까. 이런, 신발끈이 또 풀어져 버렸어.



글을 시작하기 전에 - 나는 환경형 성폭력을 피해자로서 경험한, 한 공동체의 일원이다. 공동체의 이름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쓰여졌지만, 모든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 개인의 기록으로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좋아했든가. 생각해보면 아련하고 애뜻하기 그지없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노래를 하고 책을 읽기 위해. 신입생의 첫 학기는 온통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 하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알을지도 모르는 이 감상적인 회상은 이제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되었다.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게 되어서, 남이 가진 무언가를 부러워하듯 아득하게 추억을 곱씹을 뿐이다. 그러니 당신을 왜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지가 궁금할지도 모른다. 그 전에, 잠깐이라도 짐작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딱딱하고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냉랭하게 싸우는 것의 어려움. 만나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애를 하며 웃던 여느 때와 다르게 어색한 미소와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 이렇게나 한 순간에 변해버린 것 같은 그들을 볼 때의, 차라리 놀라움. 등, 일단 당신의 영성한 고덕거품을 걸논질 한 후에야, 나는 입을 뗄 수 있다.

아직도 입에 올리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이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이렇게나 갑자기 내 생활을 치고 들어왔다. 게다가 '환경형 성폭력'이라는, 언뜻 현학적으로 들리는 이 단어는 이제는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명정한 생활어가 된 지 오래다. 단호히 발음한 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의 생활 자체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동안의 몸과 마음을 지배했던 사건이 내 머릿속에서 행하니 사라진 것 같았다.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렸다고 하는 것이 맞을 만큼 말이다. 순간순간의 느낌들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글을 읽는 당신에게 내가 피해자로서 경험한 사건에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책장 한구석에 뒤집어서 꽂아둔 그 때의 간담회 자료집을 뒤적여 설명을 첨부한다.

'농활대 안에서의 성폭력적 상황은 크게 1차 가해와 이후 2차 가해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가해와 2차 가해는, 단순한 시간 순서나 장소의 차이, 또는 가해자의

소속(농활대 내부/외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의 오류나 합의의 부재 등으로 공동체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사고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피해자가 다시 상처받는 것이 2차 가해인 것이다. 갈비집 저녁 식사에서 마을 분들이 여학우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것, 순장 아저씨가 농활대 전체에게 '군기'를 운운하며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한 여학우를 무시하고 고학번 남학우 두 명이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함으로써 여학우 농활대원의 주체성을 주변화한 것이 1차 가해라면, 2차 가해는 일련의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체 평가 자리가 사전 준비 없이 거칠고 폭력적으로 진행된 것, 전반적으로 사건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한 농활대원들의 반응, 공간 분리나 논의 보장 등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보호가 전혀 없었던 상황들을 들 수 있다.'

aftermath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일어난 논점에 관한 글들, 또한 농활대원활동에서의 성폭력적 상황에 대한 고찰 등은 이 자료집에 빼곡이 실려 있다. 덧붙이자면, 모든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웠다. 피해자(들)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 타인들에게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입으로 꺼내어 언어화하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한 비대위를 조직하는 것, 가해자들과 논의하는 것, 요구사항을 관철해내는 것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복수(複數)였고 그들이 모두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직접 대면하여, 그것도 주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다. 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운동화에 붙은 껌처럼 찌익 늘어나 끈적거리는 성폭력 사건의 영향력이란 사실 막강하며, 그것에 해결이란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사건의 과정 이후의 공동체는, 당시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공동체에서 굳건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라도 중요한 것이다.

무게, 기꺼이 짊어지야 할.

사건해결을 위해 거의 모든 구성원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진행되던 공동체의 일정은 하나 둘 썩 미뤄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곳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걱정스레 논의과정을 물어보던 사람들의 뉘앙스에는 '그



래서 이제 어떻게 수습할건데'가 깔려있었다. 나는 공동체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해져 있었던 일정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과 조급함이 함께 밀려오는 것을 어찌지는 못했다. 어쨌든간에 공동체를 일시 정지시켰다는 죄책감과 이렇게 된 만큼 보란듯이 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조급함을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나는 잊지 못한다. 서류와 자료집들만이 가득하고 아무도 찾아와 있지 않았던 그곳은 차라리 무력감의 상징이었다. 그 무력감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무언가가 없어져 날아가 버린 것 같았다. 이 시간적, 인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주의 세미나 외에도, 공동체에서 해 오던 활동들, 즉 공연 준비를 한다, 엠티다 티에스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공동체에 정성을 들였지만, 이 죄책감과 조급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은연 중에 스스로도 공동체를 망친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내 안에서는 커다란 죄책감이 날 짓누르고 있었고, 매번 그것을 상기하게 되는 순간들을 접했다. 이를 들면 특히 고학번 선배들로 향하는 의혹들. 이런 것이다. '저 사람은 왜 그 때 이후로 이 공간에 잘 오지 않는 것일까. 왜 그 후론 내게 저렇게 부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일까. 꼭 세 번 정도 만난 사람처럼. 왜 이제는 잘 마주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일까. 혹시 의도적으로 나나 공간을 피하고 있는 것일까. 미안해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휘이 머릿속에 감긴다. 사실 생각해 보면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니 각자 바빠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잘 못 만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간담회에서, 회의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에 오버랩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음, 정말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만 긁고 있어서야, 할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었다. 원하는 것을 얻어냈으니, 그렇다면 행복하게 웃어야 했다. 원하는 것을 준 사람들은 다시 그 것을 바랐다. 속으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이리저리 보면서도, 나는 살짝 웃어보았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이기도 했다.

담론의 폭발.

구성원, 특히 가해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내놓고 막말하는



초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관계의 끈은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가슴속에 여성주의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야 두 시간 내로 결말 보고 저녁 먹으러 가도 되는 해피엔딩의 영화들은 필요치 않다. 현실과 더 가까운 것은 지지부진한 경과와 끊임없는 수정이라서, 맘놓고 다 잊고 저녁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반동의 역풍에 맞서 시련을 뚫고 여성주의를 지킨 우리의 공동체'는 이제 무엇을 할지를 고민했다. 나는 잔뜩 고무되었다. 여성주의의 텍스트들을 날라서 함께 읽고 이야기했다. 여성주의는 모두의 교양과 센스가 되었고 모두가 여성주의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어김없이 '저번의 그 사건(성폭력이라고는 안 한다)에서도 볼 수 있듯이'라고 운을 뗐기 때문에 (과장을 좀 보태서) 그 말만 세면 하루에 몇 번의 발언을 여성주의에 바쳤는지 알 수 있었다. 어쨌든 나는 그들이 꽤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나조차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를, 나는 문득 그들의 말들이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주의를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양에 여성주의를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강박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때의 나는 모든 것을 순조롭게 다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너무 고마웠고 사실 감히 의외이며, 감히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감사할 만했다.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수성이 전무했던 옛날보다는 낫지 않은가, 라고 자위했다. 여성주의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을 때 머리 아프게 말하더니, 이제 여성주의가 담론의 중심에 서자 또 장정거리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적이 구성원들의 진지한 사유를 불러일으킬 만큼 성숙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였다.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이제 조금씩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여성주의가 달고 달아 시시해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 내 입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또 다른 이의와 코멘트를 나오게 하고 싶진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침묵했을 때, 여성주의는 올드패션이 되었다. 공동체의 여성주



의에 대한 인식은 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이제는 정말 상큼한 센스(꼭 이렇게 써야만 할 것 같다)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신의 위치와 마인드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생활의 매너와 센스, 쿨-가이(때로는 걸)의 교양으로서의 여성주의가 세련되게 포장되고 있다. 이것은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 고공 평균대 위에서 출렁거리며 걷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 추락조차 세련될 것인가 '그 사건'과는 다른 모습으로?

먼지를 탁 탁,

이제 공간에 당사자들은 몇 몇밖에 남질 않았고, 구석에 꽃혀있는 간담회 자료집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아니, 생각해보니 누군가가 눈에 잘 안 띄는 쪽으로 옮긴 것도 같다. 공동체로서 불행한 일들이 자꾸만 성폭력 사건과 관련되어 일어나서, 직접적 그것을 회상하여야 할 즈음에 누군가 몰래 한 짓일 것이다. 한 때 빈틈없이 사람들의 손을 타던 '그 사건', '02년도 여름', '농활사건' 등등은 이제 그 허(虛名)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다들 기억의 저 밑으로, 맨 아래 서랍장으로 쑥셔박아 두었다. '공동체의 트라우마'란 정확한 명명법일까. 그 말이 발음되자마자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누군가는 속으로 '편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고 우물거리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경우가 좀 다르다. 구성원 중에서도, 그 사건을 직접 접하지 못한 03학번들, 당시의 새내기가 그랬다. 사건해결과정으로부터 1년 후, 갑자기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당시 새내기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를 무진 궁금해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눈만 똑똑 똑똑 굴리고 있었다.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선배들의 이야기 보따리로 기대되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때의 무용담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하기도 어려워하는 지독한 트라우마로,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사건은 어떤 면면만을 간씩 내보인 채, 선정적인 호기심과 추측이 난무하는 속에 방치되고 있었다.

구석에 방치되고 있던 간담회 자료집 한 권 잘 보이는 데 꽃아둔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전달하기 어려운 경험에 대해 어떻게 말문을 틀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실제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의 부담스러움, 아니면 거론되지 않더라도 상황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들에게 말하는 것의 난감함, 고자질 하는 것 같고 투정 부리는 것 같은 이 딱딱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찰나들의 느낌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당신에게서처럼 영성한 고덕거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메시지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만의 반성폭력 운동사

애초에 '문제의식을 함께 잘 이어가자(혹은 '풀어내자' - 몇 번이고 속아넘어간 클리셰)'라고 했던 약속들은 어쩔 수 없이 종잇장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깜빡 잊고 몇 달이나 창틀에 피놓은 책처럼 퇴색하고 퇴색하여, 끝내 가루로 부서져 내리면 존재마저 없어질 것이다. 이미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있다.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공동체 내의 변화에서 여성주의자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것들이 충분히,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에 대해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상을 조목조목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경험들은 계속 공유되어야 하고 메시지는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관악의 반성폭력 운동사로 예전의 작업들을 돌아보며 현재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것처럼, 전면으로 나서지 않는 관악 구석구석의 수많은 작은 단위(3)들에도, 자신들만의 반성폭력 운동사는 존재하고, 주목되어야 하고, 정리되어야 하고, 모두에게 소중히 간직되어야 한다.

나가며 - 기억.

가끔 묻는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사실에 대한 기억이 확실치 않으면 자료집을 펼쳐보면 되고, 피해자 여학우 논의 테이블의 일정이 생각나지 않으면 다이어리를 펴면 되고, 내 느낌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당시의 내 개인 게시판을 이리저리 클릭해보면 된다. 웬만큼 다 복원되고, 비교적 생생하게 느낌들이 재경험된다. 하지만, 아직도, 무언가 확실하지 않다. 그때, 사건경위는 이리저리하고, 논의 테이블은 빠르게 굴러 갔고, 게시판의 글들은 죄다 삭제 있는데,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것을 아직도 알 수가 없다.



© name

그래서 언제나 떠벌떠벌 말을 해놓고도 돌아서면 검은 허방을 짚는 것 같은 막막과 아찔함이 아직도 날 채우고 있는 것이다.

글을 쓰기 전에, 확실치 않은 기억 때문에 고생했다. 그것을 보완한다고 본 여까지 자료들은 혼란스럽게 내 머리를 뒤집어 놓으며 아예 손 댈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신입생 첫 학기의 평온한 시절만이 감상적으로 회상될 뿐이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좋아했단가. 그 해 여름에, 나의 머릿속에서 행방불명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소한 기억들까지, 나는 열심히 사탕했지만, 그 해 여름부터는 시간 자체가 뚝 잘려나가고 없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일거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공동체의 사상 가장 역동적인 순간을 살아냈고 최선을 다해 순간들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순간들은 더욱 더 명확하고 풍부하게 정리되어 공유되어간다. 애써 말로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민을 놓치지 않으면서 매년중에는 섬세한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슬쩍 물려나 본다.



여교수 채용목표제가 안팎의 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된 시점에서도, 교수a 성폭력은 여전히 체계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신정휴 교수 사건으로 고용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교수성폭력은 공개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나, 강의 중 강사에 의해 행해지는 강의실 내 성폭력은 사실 학내 여성주의 운동에서만 이슈화되었을 뿐 공개적인 주목을 받은 바 없다. 이 문제에 있어, 대학당국은 성폭력 없는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전적으로 강사의 재량 혹은 자비에 맡기고 있다.

강의실 성폭력은 여성 집단에 통설적으로 부여된 성향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및 왜곡, 양성평등적 인식기준에 대한 폄하, 캐미니즘 이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으로 요약되며, 주로 강사 개인의 성차별적 태도가 그 근간이 된다.

성적 차이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꽤나 익숙한 형태의 강의실 성폭력이다. 특히 학습능력에 있어서 교수가 성적 차이를 강조하는 경우, 여성대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과민반응"으로 비쳐질 우려, 학점을 통한 간접적 징계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대부분 적절한 항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명무실한 강의평가제 때문에 교수진들이 자기반성적으로 강의태도를 형성해나가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대학생들은 기분은 나쁘지만 못들은 척 강의실 성폭력을 견디는 것을 개인적으로 최선의 대안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 한자가 자주 나오는 교재가 강의에 쓰일 때, 여학생들은 '한자독해력이 낮은 집단'에 부당하게 속하곤 한다. 수학관련강의에서도 이러한 일은 종종 벌어져, 여성들은 물리적 일부 강사에 의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사고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규정되어지곤 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핵심적인 능력으로 간주되는 논리적 사고력, 한자독해력에 있어 여성이 열등하다는 일부 강사들의 근거 없는 표현은, 대다수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침묵을 망연에 대한 승인으로 삼아 매학기 그 대를 잇고 있다.

여성집단의 사회적 성향을 과장되게 규정하거나, 왜곡하여 직간접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다. 여성들은 감성적이라거나, 종교적 지향이 강하다거나 하는 표현들은, 단지 여성들이 더 예술적이라든지 혹은 점집이나 교회, 절에 다니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다는 한정적 의미만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특히 여성, 그 중에서도 '아가씨들'과 '아줌마' 집단의 비합리성은 다른 사회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결과들을 맥락에 대한 지적 없이 강단에서 공지됨으로써 더욱 공고한 '전설'이 된다.



강의실 성폭력에는 강의 태도에 대한 성차별적 평가도 포함된다. 2003년 2학기 모 교양수업에서, 베이지 신문들에 의해 페미니스트(?)로 인정받은 바 있는 모 남성 교수는 "서울대학 다니는 여학생들도 수업시간에 그렇게 머리를 만지느냐고 말하면섹시스트냐?"는 발언을 하루에 세 차례, 그 후에도 약 3주간 반복한 바 있다. 머리를 만지는 빈도야 머리 길이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강의실 내에서 버젓이 성차별적 발언을 지속한 것이다. 이것은 일부 교수진이 특정 행태에 대한 스스로의 개인적 혐오감을 서울대학의, 혹은 수강반 내 여학생 집단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는 유아적 방법으로 해소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공공연한 성차별도 유명무실한 교수평가제와 성차별금지조항의 부재 때문에 아무런 공식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여성주의적 인식기준을 사상적으로 강단에서 폄하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종류의 강의실 성폭력 중 대다수는 성정치적으로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자 하는 태도를 미숙의 증거로 간주하는 교수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강의 중 성매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아직 사회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치부하거나, 반성매매 운동을 "사회적 하수구와도 같은 매춘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라 선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002년 사회대 모 학과의 대형전공강의에서는 교수가 "매춘은 사회의 하수구다. 그러니 다른 여성들은 매춘부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여성 수강생들에게 모욕을 주었으나 역시 일부 학생들의 소심한 야유 외에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또한 2004년 같은 사회대의 한 젊은 남성 강사는 들쭉날쭉한 딸로 낳은 '섬섬함'을 토로하다 반발에 부딪치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러한 섬섬함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인식기준에 대한 폄하는, 일반적으로 여성학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폄하도 동반하게 된다. 사실 페미니즘 학설은 현행 커리큘럼 하에서 다루어지



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다루어진다고 해도 강사의 무지나 개인적 감정으로 말미암아 의도적 왜곡, 편협한 학설로 비난받을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한다. 2002년 한 교양 강의에서, 담당 교수는 신성에 남성성을 부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양성적, 혹은 여성적 신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특정 페미니즘 교리를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부적합한 이론으로 폄하한 바 있다. 일부 강사는 페미니스트 정치이론이 여성의 생물학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왜곡함으로써 여성학이 비웃음을 사도록 했다.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의 코스에서 강사채용계약에 인종차별금지조항과 함께 성차별금지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성희롱 및 성차별을 금지하는 학칙이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강의실 내에서의 성폭력을 막기 위한 신뢰할만한 수준의 압력이 되지 못한다. 원인은 제도적으로는 교수진을 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인 강의평가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강의평가제의 광범하고 강력한 적용을 전제하지 않고 성폭력에 대한 여성수강생들의 적극적인 항의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선결과제를 잘못 짚은 분석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강의실 성폭력에 대해 여성 수강생들이 광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진들과 대학본부측에 인식시키는 정치적(?) 노력은 내실있는 강의평가제가 뒷받침해주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we are against all sexual violence' 우리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3월, 관악여성모임연대가 반성폭력 주간을 기획,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썩은 빵을 만들었다. 빵 하나에 저렇게 쓰여 있다. 우리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성폭력은 대체 뭘까. 저 말에 함의된 다양한 스펙트럼들은 또 뭐가 있는 걸까. 머릿속에 슬슬 복잡해진다. 아니,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복잡해 있었다.

성폭력, 시작된 그 이야기

'성폭력'이라는 것을 먼저 발화한 주체는 여성운동주체들이다. 분명히 누군가에 억압과 폭력인 것들이, 이름 없이 떠돌며 그저 당연한 일로만 되어 있던 상황들이 이름 붙이고, 문제 삼게 되었던 것이 반성폭력 운동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수한 성폭력들은 개별적인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지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해 가는 하나의 '동력'으로서의 메커니즘을 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의 구도를 상당부분 전하고 있는 성폭력 개념은 가부장제 사회에 대해 말을 걸고 싸우는 여성운동에서 거치는 커다란 운동의 축일 수밖에 없었다. 즉, 성폭력의 개념은 '젠더 권력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왔던 것이다. '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여성 배제적인, 여성 억압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성폭력적이라 명명하고 대응해 왔던 그간의 싸움들에서 상당히 유효한 문제의식으로써 자리 잡아 왔다.

'성폭력'의 문제가 누군가의 성욕 때문이 아니라 개별 존재들의 권력 차 때문이며, 약자를 억압하는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수단으로써 성폭력이 주로 일어난다. 권력 차야말로 성폭력의 근원이라는 인식은 여성주의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아 놓았던 것이었다. 지금은 그것을 확장, 발견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젠더 권력 차이'가 가부장제 사회인 이 곳에서 가장 커다란 권력 불균등의 장이며, 여성운동단위들이 싸워가야 하는 가장 커다란 장벽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담론이 집중해 왔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다.

성폭력, 확장되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동안의 반성폭력 담론은 실제 현실에 존재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채 방치된 채로 내버려두기도 했다. 동성 간 성폭력이라든지, 여성 가해자에 의한 남성 피해자라든지 하는 문제가 바로 그 영역에 속한다.

사실 가해 여성/피해 남성의 경우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가/피해자의 구도가 사회적으로 무척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남성성이 모욕당했다'는 맥락들을 성폭력 피해의 구도에 맞춰놓는 이상한 논리들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혹은 실제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이것 보라, 남성도 피해자가 된다. 이제 정말 여성상위시대다'라며 오바하며 여성운동이 벌어어나가는 일들에 대한 안티도 구로써 사용하기도 한다. 반성폭력 담론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발목이 잡히는 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형태들에 대해 반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구린 것들에 대한 견제들도 뒤따라야하지만.(-_-)

환경형 성폭력이 있었을 때,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젠더의 문제가 큰 축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의 권력 분배는 단순히 여성, 남성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좌우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 (요소 하나하나가 대등한 권력을 개인에게 부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 위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은 남성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분명히 환경형 성폭력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주도한 것이 여성이라면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의 맥락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뭔가로 찔끔하게 남는 것이 사실이다.

동성 간 성폭력이 동성애자 간 성폭력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고의적인 오해'이다. 동성 간 성폭력 문제는 사람들의 '성정체성'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성폭력 그 자체는 분명 성정체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이후 성폭력에 대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성정체성이다. 그 상황에 연루된 사람 중 동성애자인 사람이 있다면,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하나로도 엄청난 억압과 폭력 아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신분 노출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거기에서 뽑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종종, 동성애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과 분리되지 않고 뒤섞여 버린다. 위낙에 고민주체들이 동성애 관련한 '정보'에 어둡거나 혹은 호모포비아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칙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경우의 문제는, 이성애자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들이 소외되기 쉽다는 점일 것이다.

성폭력 개념의 확장,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여운단위에서 '동성 간 성폭력'은 반성폭력 담론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상당히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운동의 이슈에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에 대한 접근은 명백히 여남 간의 권력 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권력 차이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있어왔던 내용들에 한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동성 간 성폭력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한 기존의 틀을 크게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활동에서 드는 생각은, '동성 간 성폭력'이라는 이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거론은 분명히 그동안 여성주의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틀을 어느 정도 확장시키고 넓혀나가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성별 권력 관계에서 탈각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운동이 끊임없이 다른 소수자 운동들과 연대해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이들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에 있어서 개별 주체들의 권력 차이 그 중에서 성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여남에서 여성이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성폭력에 대해 반대해나가는 인식은 여성주의의 기존 틀을 상당 부분 수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가며 -

사실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

이 들지만, 정말 이제 고민을 잘해나가지 않으면 단순히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한나라는 세련된 모습만 비추고 말만 해버리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기우에서 꼭 글을 쓰고 싶었다.

기존 문제들도 잘 안되는 판에! 그냥 각자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우선 이걸 해결하고 이게 좀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라는 운동의 단계란 애초에 없지 않나고,(-_-) 글을 마무리지를 무렵, 슬슬 스스로에게 떠오르는 한 마디는 '그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능력 측면에서는 노력 투여의 부분에서는'이었다. 기존 반성폭력 담론이 포괄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 - 예를 들어 장애여성의 몸의 경험이라든지 레즈비언의 경험이라든지 하는 - 은 최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로서 함께 연대해나가는 것이,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들과 함께, 인식틀은 자연히 넓어지고 운동이 가능해질 일이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목에서 '성폭력'이란 언어의 발견은 고통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음에 틀림없다. 종종 초기의 성폭력 관련 문헌을 읽을 때면, 이름도 모르는 언니들의 투쟁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녀들의 절박함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울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체 왜 그 딱딱한 자치규약과 학칙조항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지금의 시각에서 그 문헌들은 한계도 많고 01학번인 나는 그 이전의 상황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성폭력을 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치열함과 고통만은 쉽게 이야기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성폭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언제나 가장 아픈 부분인 동시에 가장 절절한 부분이다. 또 반성폭력 운동은 그 폭발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여성주의 속에서도 가장 왜곡되어 이해되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반성폭력에 관한 글은 쓰기 힘들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운동을 해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관찰자'로서의 위치를 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주의자로서 여성주의 내부의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간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하고 또다른 운동의 동력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작 운동의 방법적 담론을 만들어 내는데는 소홀해왔다. 이를테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새내기가 들어오고 활동가들이 바뀌는 대학이 지형에서 그런 문제의식들이 쌓이지 않고 단절된 채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디까지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학내 반성

폭력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이 많았다. 그러나 분명히 전제할 것은 이 글이 그간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초들에게 이론적 공격의 여지를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성폭력 운동이 문제점을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무시하자거나 피해자의 상처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그간의 현실에서 제대로 된 반성폭력 운동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나의 자매들에게 쓰는 글이다.

1. 서울대학교 반성폭력 운동의 시작 - 이름 없는 것에 이름 주기

한국 사회에 대중적인 의미의 성폭력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서울대 신정휴교수 사건¹⁾에서 기인한다. 그 이전까지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여성²⁾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언어도 가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반성폭력 운동이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드러나지 않은 답답함, 하지만 여성이라면 한번쯤은 느끼고 있던 은폐된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의 이슈가 대학 사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96년 한총련 사태 때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여대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성폭력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관악에서도 다양한 위치에 놓여있던 학내 단위들이 모여 서울대학교 차원에서의 반성폭력 학칙 제정과 각 소속 단위 내에서의 반성폭력 자치규약, 혹은 내규라는 성과를 남길 수 있었다.

그간의 반성폭력 운동은 잇달아 생성된 여운 단위와 학생회 내부의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여성활동가와 과/반 여성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단위들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문제는 더욱 가시화되었고 법적인 담론이 전혀 없었던 그 때에는 성폭력을 '자치'의 개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반성폭력 자치규약'이다. 자치규약은 '스스로 논의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지킨다'³⁾는 기치아래 각 단위들의 자생적 자치권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졌다. 반성폭력 운동은 그간 '성폭력 백화점'이라는 대학을 그 주인인 학생들의 스스로 '성폭력 해방공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관악여성모임연대가 제안한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 운동'의 제안서에는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잠기장에 성폭력 알리기, 애인과 성폭력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기 등' 성폭력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대 차원에서도 성폭력 개념 알리내기와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여운단위들의 노력으로 인해 비교적 많은 단대에서 자치규약이 만들어지기에 이른다.

자치규약은 성폭력을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야기하며 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⁴⁾의 관점과 가해자의 '공개 실명 사과 자보'를 통해 성폭력 해결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개 설명 사과 자보는 은폐되고 삭제되었던,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코 피해를 드러낼 수 없었던 피해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로 사건을 바라보고 명예 회복을 위한 사과를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공개 사과 자보의 전략적 유효성은 당시로서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관악에서 성폭력 담론에 대한 활성화를 만들었다. 설명 공개 사과 대자보를 통해 그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성폭력의 '피해'를 정면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앞서 관악의 반성폭력 운동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사건을 공개하는 만으로도 커다란 이슈화를 할 수 있었던 여운단위의 입장에서 비대위를 통한 공식적인 해결과 설명공개사과자보는 성폭력이 '술 먹고 하는 실수'로 여겨지고 피해자의 '실'의 문제로 여겨지던 성폭력이 가해자에게 초점 맞춰지며 성폭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점에서 전략적 유효성이 있었다.

한편 자치규약은 말 그대로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한 '자치'가 인정될 때만 유효성이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건 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치규약은 사실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좀더 강력한 강제력이 담보되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생 사회로 포괄할 수 없는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 역시도 학생들 내부의 자치규약이 포괄할 수 없는 면을 '학칙'의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이런 움직임은 99년 서울대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활동단 바/로/지/금 등의 활동으로 이어진다. 서울대의 경우 학칙의 제정은 많은 학우들의 공감과 잇따른 교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교육부의 권고로 인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학칙의 제정과 상담소의 건설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학내 반성폭력 운동, 그 문제점과 어려움

반성폭력 운동의 폭발적인 힘 앞에서 이제 성폭력이 해결(해결이란 말을 쓸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대학 사회가 '성폭력 해방 공간'의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은 서서히 초기의 '당위'로만 여겨지던 반성폭력 운동에 침묵하며 동의하는 척했던 반대 세력과 부딪히게 되었다. 반성폭력은 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여성주의에 감정적 비방을 일삼는 일반 마초 이외에도 반성폭력 운동을 함께 하며 적극적으로 끌어내고자 했던 학생회 운동력, 그 중에서도 남성 활동가들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없음이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며 더욱 어려워졌다. 그 예로 인문대에서는 98년 일사천리로 성폭력 자치규약



통과되었지만, 사실 그 실상은 여성 활동가의 노력과 고민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성 활동가들은 '남자니까 페미니즘을 잘 모른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만들어진 학칙에 '동의'를 표명하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반성폭력 운동의 실천에 있어서 학생회 운동의 하위에 있는 부분 운동으로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끌어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인문대 학생회장 성폭력 사건"은 학생회 좌파 운동이 주장하던 '반성폭력'이 결국 그들이 말하는 투쟁에 걸림돌이 될 때에 피해자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게 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실천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00년 인문대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개정을 위한 활동단 '맛/향/뜨/기: 내 정체를 밝혀라'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명시되어있다. '자치규약은 너무나 당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인문대 내에서의 성문화는 그다지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인문대 2001년 홍성균 농활 성폭력 사건"과 그 해결과정에서 학생회의 미온적인 해결 방식은 학생 사회를 고민하고 반성폭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주체여야 할 학생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 속에서도 여운 단위 활동가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로 꾸러지는 비대위는 학생회 인자들의 반성폭력 해결 주체로서의 의식 없음과 여성주의 활동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성폭력의 해결을 오직 몇 명의 여운 단위에만 맡겨놓음으로써 여운 단위가 전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 매달려야 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는 반성폭력 운동이 걸으로 드러난 것처럼 전적으로 관악의 학생 사회에 심도 있는 고민 의식이 아닌 '진보와 세련'을 가장한 세력의 침묵과 함께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은 일상 속에서 번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해결의 주체인 비대위는 필수적인 것인데, 그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운 단위는 그 모든 책임을 홀로 떠맡게 된 것이다. 이는 기층에서 책임감 있는 활동가를 길러내지 못한 과오이다.

한편 반성폭력 운동은 초기에는 아무 말 못하고 있던 마초들의 저항 세력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제 '반성폭력'은 너무나 일상적인 말이 되었고 마초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상징하는 여성운동진영에 공공연하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는 2001년까지 자연대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시도가 노골적이고 근거 없는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비방 속에 3번이나 50%를 넘지 못해 무산된 것에서 잘 나타난다. 또 설명공개 사과 자보의 폭력성과 가해자 인권을 두둔하는 움직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를 위한 가해자 휴학에 대해 나타내는 가해자 동정론은 반성폭력 운동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여운단위의 이름을 밝히는 공개 자보에 관해 노골적인 익명성을 담보로 비방을 일삼거나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르며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마초들은 여성운동사력에 반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방식은 초기의 무식하고 마초적인 방법이 아니라(물론 그런 것도 많았지만) 여성운동의 전략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새련된'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는 성폭력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척 하면서 그것을 제기하는 방식에만 문제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신을 가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운 단위의 '경험 없음'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남성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권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객관적 관찰자로 위치시키고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오만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 제멋대로주의'라 부르며 여운단위들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에 대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으로 여운 단위의 자치규약에 의한 반성폭력 운동에 가장 큰 한계점을 느끼게 한 것이 '가해자들의 억고소'였다. 이는 가해자가 비대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비대위의 결성 사항에 부복하거나 후에 당시의 사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고소는 관악의 반성폭력 운동의 담론이 더 이상 학내의 이슈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법이 사회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을 볼 때에, 법 담론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니와, 성폭력에 대한 법적 언어의 부재와 증거주의 등은 성폭력 논쟁이 법정에서 풀어졌을 때의 한계는 볼 보듯 변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준비를 다해 고소하는 가해자와 달리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여운단위들은 기력을 소진해야 했다. 가해자는 공판일을 바꾸거나 그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식의 악랄한 방법 및 여운단위 인자들의 법적인 지식의 부족한 면을 공격을 해왔다. 또 법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대학 내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맥락은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었다.

결국 성폭력을 자치규약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전제는 '공동체의 존속'이다. 그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는 구성원을 전제함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결국 총학생회를 세우지 못한 것처럼 학생사회의 특히 학생회라는 조직의 붕괴와 더 이상 하나의 정체성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둘 수 없는 상황은 자치규약이 성폭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실효성이 줄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2년 인문대 반성폭력 자치규약 실천단 아궁이"의 활동이 실질적

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것도 더 이상 학우대중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규약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단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대위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강제성이 없는' 비대위의 경우에 가해자가 거부하려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상담소의 권고 조항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2002년 서사과-종교과 새터 환경형 성폭력 사건"이 해결 주체의 부재와 가해자의 거부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사례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될 수 있다. 또 가해자들의 '매장'을 걱정하는 동정론과는 달리 현실에서 가해자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들의 소속 단위로 복귀하고 있다. 그들의 성폭력 가해 사실은 잊혀진 채.

성폭력 개념은 이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발화되어져서 너무나 다양해져 성폭력 해결에는 어떠한 정형화된 공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성폭력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거나 마초들이 자신들이 반성폭력의 운동과 여운 단위의 폭력성의 피해자라고 하며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기막힌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그것이 왜 성폭력인지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서 반성폭력의 운동이 그 동안 해왔던 성과에 기대어 관성적으로 성폭력을 이해하는 어이없는 것이다.

3. 반성폭력 운동, 새로운 시작.

참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써왔다. 약 10년이 넘는 세월을 정리하면서 관찰자로 자신을 위치시키려(이것도 우스운 말이지만) 했다. 이제까지 이야기되어져왔던 반성폭력 운동사는 그 폭발적인 성과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운동이었다.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의 정의를 좀더 섬세하고 다양한 언어로 설명하고 대중에게 공감될 수 있어야 한다. 확실히 성폭력은 다양한 정의를 필요로 하고 그 맥락에 맞는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폭력은 이제 성폭력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초기와는 다른 맥락 속에 놓여져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 정도는 썩는 행위이다'라는 암묵적인 룰을 가지고 있다. 비록 자신이 성폭력에 동의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뻔 것'이란 느낌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폭력을 더욱 섬세하게 정의해야 한다.

물론 성폭력은 더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앞서 글에서 성폭력을 피해자로서의 여성과 가해자로서의 남성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다. 이는 그 동안의 성폭력 사건이 여/남의 구조에 맞추어져 있었고 이는 이성애적 구조에 초점 맞추어져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유효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한다.⁵⁾ 그러나 성폭력을 설명하는 여성주의자의 언어는 더욱 다양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성폭력을 설



명해내는 섬세한 언어를 개발하는 동시에 성폭력이라는 일련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가 최초로 제기했던 은폐된 '폭력'을 고민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성주의의 힘이라 믿는다면 그 과정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성폭력들을 미묘하게 작동되는 권력 구조 속에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성폭력의 해결 방식에 있어서 이제 공개성명사과자료의 유효성이 적어지고, '강제력'이 없는 비대위의 경우 가해자가 거부하려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기존의 자치규약에 의한 비대위 해결 방법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위가 명확한 새터와 같은 특수한 공간 속에서의 성폭력이나 과반 학생회의 영향력이 살아있고 구성원들이 성폭력의 해결의지와 역량을 가진 단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여운 단위에게만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또한 성폭력은 이제 학생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나 교직원에 의해 일어나고 교수 성폭력의 경우에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강제력을 시행할 수 있는 반성폭력 '학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을 단지 학내의 사안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사회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학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학칙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폭발적인 답은 형성과 사회에서 여성운동에 힘입어 교육부의 권고로 비교적 쉽게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서울대학교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에 학생들이나 여운단위의 실질적인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소와 여운 단위간의 소통의 부재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여운 단위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성폭력을 풀어내기에는 강제력이 너무나 아쉽고 막대한 상황이며, 과도하게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몰입하게 된다.

또 성폭력에 대한 계속된 법정 공방과 가해자 명예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은 여전히 여운의 경험을 완전하게 드러내주지 못하는 범담론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성폭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식론적인 지반은 미약하게나마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물론 이는 한국 사회 내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성과이자 동시에 앞으로 더욱 범담론 속에서 성폭력의 위치를 고민해야 함을 반영하고 있다.

학칙이나 범담론을 통한 성폭력의 해결만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성폭력 운동을 고하는 여운단위의 자생력이 무기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폭력 해결 과정의 문화와 생존자로서의 전문화된 피해자 치유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활동가가 계속해서 바뀌는 학생 신분의 여운 단위 인자들이 담보해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운 단위는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과 반성폭력 학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 상담소의 연결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것이다. 또 학내 반성폭력의 특수성을 짚어내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학우들에게 반성폭력의 중요성을 알려내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더욱 섬세한 언어의 개발과 설명 체계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4. 나가며, 들어오며, 시작하며

글을 쓰면서 꽤나 힘들었다. 객관적인 채 서술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성폭력의 문제를 자신과 떨어뜨려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상처의 기억은, 트라우마는 결코 가볍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살아' (그림에도 불구하고 좀 힘내서 살아왔으면 좋겠다.)라

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녀들의 상처에 단순한 지지와 공감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그녀들의 고통에 여전히 지지를 보낸다.

이 글은 원래 '한계'에 초점 맞추어져 써졌다. 사실 반성폭력 운동의 치열함을 생각할 때, 그저 칭찬만 해도 정말로 힘이 빠지는 운동이라 '한계 따위 말해서 뭐하냐'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여성주의가 화석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여성주의이다. 처음에 '한계'라는 말을 써서 글을 완성하고 다시 읽어 본 뒤에 '한계'라는 단어를 '문제'로 바꾸었다. 반성폭력 운동의 한계는 없다. 다만 고쳐나가고 하고 고쳐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여성주의의 치열한 고민과 목소리내기를 고민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의 시작을 기원해본다. 이 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고민들로 더욱 풍부하게 덧붙여 쓰여질 테니까.

1.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우조고 사건이라 알려져 있지만 성폭력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초점 맞추는 용어인 '성교사 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더욱 올바르다.
2. 성폭력 사건의 구도에서 성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초로 성폭력이 이슈화되었을 때에는 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은폐된 폭력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반성폭력 운동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이런 구도가 상황을 제대로 짚어내는 설명이 될 것이다.
3. 안희은정,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자치규약제정의 발전적 모색, 학생자치 규약 제정 포럼 발제글
4.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명확히 남성화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결 절차를 기대하기 보다 수많은 의혹과 끊임없는 '피해자 성폭력 유발론'을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바라볼 때 피해자의 치유와 생존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사건을 바라 봐야 한다.
5. 왜냐하면 여전히 성폭력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여성 억압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권력은 실질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성폭력 담론에서 마초들은 곧잘 여성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100명의 남성 가해자와 1명의 여성 가해자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1명의 여성 가해자 사건이며 이는 성폭력이 여/남의 불평등한 구조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남성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진다.



내 인생에는 즐거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한 중심 따위는 결코 없다.
그리고 방향도 없고 노선도 없다.
넓다란 장소가 몇 개,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고 믿게 만드는 공간이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마르그리프 뒤라스, <연인> 中

고정 코너



Interview

힘 내라 여성운동!

- 어떤 언니를 만나다

정리 아생싸가지

나는 그녀를 잘 몰랐다. 내가 학교에 들어와 여성운동을 할 때 그녀는 여행을 갔었다고 했다. 당시 내가 사랑한 페미니스트 언니들(지금도 사랑하는)은 가끔씩 그녀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들이 너무 즐거워 보여서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은 생각지도 못한 날이었다. 웬나리 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낯선 사람을 보며, 대체 이 고학번 뻔이 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했지만, 금방 반갑게 그녀를 맞는 다른 언니를 보고 나는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앗! 이 사람이야!'라는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졌었다.

이제 서울대 여성운동도 참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다. 물론 세 10년도 안되는 역사라 말하자면 할 말이 없다. (그게 어디냐, 박사!) 그러나 내가 모르던 전 시기에 활동을 했던 그녀들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성운동을 시작했을까를 생각하며 괜한 어리광이라도 피우고 싶었던 나는 조금은 무례하게 덤벼 그녀를 잡았다. 그녀는 98학번으로 인문대와 관악여모에서 여성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인터뷰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하다!) 인터뷰는 장장 2시간 동안 (덕분에 아생은 과외를 했다) 인문대 웬나리방과 학관 여휴에서 진행되었다.

쥬이: 안녕하세요. 쥬이썬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속으로 벌써부터 두근두근한 아생. 난 정말 언니들한테 약하다) 먼저 쥬이썬스 독자들에게 인사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호뭇호뭇한 아생) 그런데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라나. 주되게 활동한 단위가 인문대여서 아무래도 인문대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 같고, 아무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보니, 그 때 일들을 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는 건 분명히 해야될 것 같아요.

쥬이: 예행.. 그러면 관악 여성운동의 시작은 반성폭력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도 여학우 모임들 같은 건 좀 있었다고 들었지만, 아무래도 여성주의적인 정치적인 주제로 모이게 된 건 반성폭력 운동이 가장 처음일 것 같아요. 그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어요?

언니: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 93년 신정후 사건이긴 했지만, 학내 여운단위들이 주되게 결합하기 시작한 건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한송련 사태라고 보는게 맞을 거예요. 그 때 한송련 출범식 때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여학생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게 이슈화되면서 각 대학의 단위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주로 이대나 연대 같이 신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활발했어요.

관악에서도 관악여모가 만들어졌었고, 지금도 신기한 건 다른 학교에는 보통 총여학생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연대체를 기반으로 한 여성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관악여모는 94, 95 학번들이 96년에 처음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회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도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우리 학교에도 잠시 총여도 있었다고도 하고, 하여튼 관악여모의 출발은 그

당시 활동하고 있던 학생정치조직의 활동가들이 무언가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된 거죠. (아생 끄덕끄덕, 관악여모는 훌륭한 단체군.)

쥬이: 그렇다면, 초기에 성폭력이 학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슈화되었는지 궁금해요.

언니: 글쎄요, 사실 초기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에는 뭐, 사실 성폭력이란 개념조차도 없었죠. 97년에 국문과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인문대 내에서는 최초로 공론화가 된 성폭력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던가 뭐, 성폭력이 뭐고 대중 이렇게 해결한다와 같은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서 정교화된 논의나 해결이 불가능했어요. 논의도 계속 삼천포로 빠지고, 계속해서 개인들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리기도 하구요.

그러다가 제가 입학한 98년도에는 약간의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로 인문대나 사회에서 사건이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내 여대생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페미니즘에 대한 수요라고나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에 여학우들이 많아서 기존의 과 문화랑 맞물려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도 낙관적이고, 그때는 뭐라도 우리끼리 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에너지가 마구 넘쳐서, 호호.

쥬이: 아, 언제나 그런 운동의 역사를 들으면 어쩐지 불끈불끈 힘이 나요. 그런 자치적인 흐름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언니: 음... 확실한 전후는 저도 가늠할 수 없지만 98년에 학생회를 '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여성주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그때는 그 학생회가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 학생회 운동 외에는 별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던 시기라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여성운동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이 때 여성모임들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싸우는 거죠. 일상에서 싸우고, 과방에서 싸우고 -_-;; 하지만 분위기는 정말 고무적이었죠. 98년에 인문대에서 여성 활동가들이 모여서 우리도 관악여모처럼 독자적인 여운단위연대체를 만들어보자구 그래서 막 총동원도 하고, 막 뿔러서 (언니들은 몇 지기도 하지. 영영) 인문대 내에서 독문과 국문과 동사과 철학과 서사과 미학과 영문과 등 두지 않은 과가 결합했어요. 1학년만 모여서 1학년들끼리 우리 여성운동 할 꺼다! 라고 막 선언을 해버린 거죠. 선배들은 진짜 뻔하게 생각을 했는데, 니네가 지금 학회 안하고 뭐하나, 라던 사람도 있고 뭐 너희들끼리 자발적으로 한다고 좋아한 선배고 있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재미있는데, 그게 인문대여성모임연대가 생기게 된 맥락이에요. 우리도 관악여모처럼 연대체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자! 뭐 이런 거죠. 모인 사람들도 정말 다양해서 그냥 여학생모임 사람들도 있었고 맑시스트 페미니스트, 그냥 여성운동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 이것이 바로 자매들의 연대!)

쥬이: 인문대 이외에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나요?

언니: 사회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자치회의 역사가 길었고 공대 여위 96학번들도 열심히

관악여모에 결합을 했지요. 하지만 거긴 위낙 여학생이 없어서 재생산이 항상 어려운... (흑흑) 90년대 후반 진보운동에 계속해서 부분운동처럼 여겨지던 여성운동이 물밑으로 드러나는 시기라고 할까나. 근대 참 웃긴게 성폭력 사건이 98년 이후로 매년 한학기에 한개씩 터져주는 거야. 그니까 1년에 2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음모론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우스개소리로 이게 여성운동의 축복이나 재앙이나 라는 소리도 했었고, 해결은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성폭력 사건 한번 터질 때마다 여성주의자들 여럿 떨어져나가잖아요.

쥬이: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언니: 자치적으로 성폭력 해결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였어요. 그때 인문대 독문과 성폭력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이걸 학교에서 정계처분이 떨어졌죠. (아니, 학교가 그런 일도 했었던 말인가!) 이때에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 방어막 같은 것도 없었고, 사실 경찰에 끌고 가는 게 너무 소모적이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죠. 신교수 사건이 몇 년을 끌면서 결국 한국 사회에 피해자가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든 것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도 무언가 방법이 없었어요.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그냥 술을 사주더라구요 -_-;;

그래서 성폭력 사건을 법담론이 아닌, 그때는 성폭력 특별법도 없어서 법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무언가 자치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분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인문대에는 여우방이라는 여학생 동아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전인대회에서 통과시켜서 인문대 반성폭력 자치규약이 생겼어요. 그때 막 다른 학교 것들 가지고 와서 읽어보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한 단대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단대에서도 만드니까 누군가 써온 원본이 조금씩 고쳐지면서 각 단대마다 저마다의 사정에 맞추어서 자치규약을 만들었죠.

쥬이: 자치규약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해주실 수 있나요?

언니: 음... 자치규약은 2가지 이유에서 만들어졌는데, 성폭력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보자는 것과 학칙이 없으니 자치규약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내용에 있어서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성폭력에 대해 감이 없었으니까 성폭력이 이런거 다 라는 개념 설명과 유형들, 설명을 넣었고, '여성과 사회' 같은 것을 보고, (여성과 사회는 우리학교 이남희 선생님이 편집장으로 계신 곳... 올해는 책이 나오겠지요) 또 성폭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공개설명사와자보랑 가해자 재교육의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언급했죠.

쥬이: 자치규약으로 사건 해결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언니: 그때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도 없었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규약에 의해 해결을 했어요. 그때는 성폭력 자체도 너무 개념이 없어서 공론화와 필요성이 시급했고 자치규약에서도 이런 민에 집중해서 가해자 공개설명사와자보를 쓰는 방향으로 해결한 사건이 많았죠. 지금에 와서는 다양한 성폭력들을 해결하는 다양하고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Interview

이 드는데, 그때에는 가해자 실명사과는 여성주의자들에게 반!드!시! 관찰시켜야 할(언니는 여기서 주먹을 쥐었다) 어떤 것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막 '왜 이름을 밝히라고 하느냐, 안그래도 쪽 팔린 만큼 팔았다, 인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그때에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정하고 실명을 건 사과를 해야하는 결박함이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성폭력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기자보잖아요. 평소에는 절대 안 보던 사람들도 성폭력 자보만 붙이면 바글바글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성폭력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런 공론화도 필요했었죠.

하지만 그런 해결방식은 피해자에게 참 많은 부담을 준다는 데서, 혹은 피해자가 짊어지야 할 짐이 참 많아서 모든 사건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피해자의 상처가 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치규약의 한계가 '자치'라는 말이죠. 결국 자치규약으로 성폭력을 해결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지와 가해자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개기거나 뻔대면 또 가해자를 어떻게 할 수 없죠. 자치규약은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니까요.

쥬이: 그러면 반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건가요?

언니: 자치규약의 강제성이 문제가 되니까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 흐름은 이전부터 있던 것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성폭력특별법이 생겨서 좀더 만들기가 수월했어요. 총학생회와 연계해서 본부에 연락해보니까 본부도 '뭘, 만들죠.' 정도의 분위기였고, 사실 이때는 교수 처벌 같은 건 생각도 못해서 발로 걸릴게 없었어요. 관악여모랑 총학 여성위원회 등 여러 단위가 모여서 만들었죠. 학칙은 일종의 법이라서 법학 연구소 이런데서 만들거든요. 당시 본부에서는 막 세계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을 보여주면서, 하버드나 예일 등 (우리 본부 스케일이 너무 크시다 -_-)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다는 걸 피력해서 과정 자체는 순조로웠죠. 여모에서도 문화제도 하고 그랬는데, 태어나서 처음 마음도 해봤어요.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후후, (나도 마음은 좀... 몸치인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반성폭력이라는 주제를 '약간' 빗겨나가게 되지만,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넣는다)

99년에 학칙을 제정하고 난 뒤에 여성단위들 내부로 평가를 좀 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문화제에만 집중을 하나, 다른 이슈들도 좀 생각해보자, 등등. 그래서 재미있는 행사도 많았어요. 그때 한창 여성노조들이랑 연대도 시작했고, 그때 낙성대에서 여성들만 있는 사업장이 있었는데 부당해고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막 가서 연대하고 그랬어요. 또 여성과 기술 강연회에서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것도 강연하고, 달팔(달나라 말

Interview

세포 - 여성주의 웹진) 언니도 와서 강연도 해주구요. 그때는 연대 단위들의 힘이 막강해서 (이런 시기에도 있었다고 한다 눈물을 흘리며 부러워하는 아생) 물물거리면서도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여모에서 자보만들면 학생회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구요. 공대, 동연, 자대, 인문대, 사회대 등 단위들이 참 많았어요. 다른 학교랑도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여성운동의 이슈가 풍부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언니의 이야기에 한창 고무되었던 아생은 옴나리 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들어온 언니 아이들이 세미나를 위해 언니와 함께 학편여휴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했다. 여담이지만 학편 여휴 좋더라)

쥬이: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해결, 혹은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자주만 생각하게 되는데, 비대위의 경험이 있고 그동안 계속 그런 논의를 해오면서 드는 생각은 없으세요?

언니: 글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존의 여운단위의 해결방식은 피해자의 결의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가해자의 자발적 동의에 맡긴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여성주의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신고가 들어온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물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런 말은 공허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각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식을 계속 구성원들이 모여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터 성폭력과 강의실 성폭력 등은 개인 간에 일어나는 혹은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는 또 다르게 해결되어야 하겠지요.

사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거니까 성폭력이라는 특정한 집단의 권력과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 반대하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이겠죠. 사실 피해자의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성주의자들이라고 해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담자가 아니기도 하고, 피해자를 꼭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수동적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도 위험한 것 같거든요. 성폭력 사건을 신고를 하는 의미는, 여성주의자나 비대위에서 '다 해결해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심리적인 상처의 부분도 있겠고, 여성주의자들이 친한 경우에는 공감을 이루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쥬이: 우와, 정말 많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무언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언니: 글쎄요. 사실 여성주의자도 완벽할 순 없고 스스로도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좀더 잘할 수 있었을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죠.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해야 했는데, 처림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좀



© Nam

Interview

더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는데, 어제도 만났거든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정말 각양각색의 인간들인데 왜 내가 애들이랑 친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문득 만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마구 웃고 있어서 서로들 흐뭇해하면서 헤어지죠. 왠지 친정집같다고나 할까. 하하, 해줄 말은 다 해준 것 같네. 줘이쌍스, 좋은 책 기대할게요.

줘이: 네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안녕~

여휴에서 빨리 나가라는 아저씨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그녀와 함께 나오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면 내가 꽤나 오버한 걸까. 언니들이 이야기는 언제나 나를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한번 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여성운동 파이팅!

* 줘이쌍스! 책으로 만나요! *

줘이쌍스는 지난 2년 동안 여성주의를 골로써 풀어내는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이라는 타이틀 하에 '언론'임을 표방해왔지만, 사실 대중의 여론을 이끌고 조성하는 일반적인 언론이거 보다는 여성이라는 소외된 계층의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고 삭제된 여성의 말하기에 주안점을 두는 '언론 아닌 언론'이었지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글을 쓰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줘이쌍스는 학내라는 공통적 기반 위에서 다소는 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글들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비정기적인 발간을 기다려주는 후원회원들이 있었고 또한 비판적으로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었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줘이쌍스는 이제 새로운 문 앞에서 있습니다. 이 문은 아주 크고 손잡이는 저 높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길다란 손들을 이어서 어렵사리 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 수 있다고 해도 과연 저 문 밖의 세상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우리를 반겨 주거나 할는지 솔직히 많이 두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줘이쌍스의 얼굴을 잠깐 보자면, 살짝 미열에 들떠 있습니다. 흥조를 뽐 붙은 낮선 세상에 대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줘이쌍스가 5월 출판을 예상으로 책을 만들고 있어요. 줘이쌍스는 항상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이제까지 줘이쌍스에서 만들던 책은 공짜책이 아니라 서점에서 '돈을 받고' 팔리는 본격적인 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이복스라는 출판사에서요. 출판계에선 보통 그런 책을 신국판 256페이지라고 한대요. 현재 줘이쌍스를 지키고 있는 편집진들 중 일부와 예전에 줘이쌍스를 만들었던 원로 편집진이 오랜만에 글을 쓰기 위해 모였어요. 여태껏 우리의 친구들에게 고백하듯 풀어놓는 이야기가 학교 밖의 사람들에게 그 화살표 방향이 돌려진다면 어떤 목소리를 갖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5월엔 서점에서 만나요!

written by susia



1 식민지의 언어

식민지 사람들은 지배자의 언어와 자기 언어, 두 개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언어만 알면 된다.

- 프란츠 파농

황무지만이 펼쳐져 있는 지구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든 적이 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발 끝엔 속을 알 수 없는 가파른 낭떠러지였고 눈 앞엔 구름으로 에워싼 허공만이 존재했다. 등 뒤로 누워 있는 황무지에는 내 말이 도달될 리 없었다. 여성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해야 할 때, 여성주의를 이야기해야 할 때, '언어'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나는 종종 말문이 막혔다.

제국주의 시대에 사는 식민지 사람들은 조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제국주의 국가의 언어를 교육받는다. 언어를 빼앗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혼을 말살시킴으로써 지배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식민 통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은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전달해줄 언어를 갖지 못하고 남성에게 의해,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를 사용해왔다. 따라서 기존의 언어는 여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여성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게 된다.

제인 캠피온의 초기작 [피아노]에서 에이다가 자신의 피아노에 유달리 집착을 하는 까닭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녀에게 있어 피아노가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피아노를 통해 감정을 표출했고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따라서 그녀에게 피아노를 빼앗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했다. 그것이 바로 에이다가 피아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Movie

<In the cut>

세 가지 시선으로 읽기

수시아

싸워야만 했던 이유였다.



제인 캠피온은 이어 영화 [In The Cut]에서, 쉽게 드러낼 수 없었던 여성의 욕망을 여성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도발적이고 선정적으로 읽힌다. 관객이 영화를 낚설어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일 것이다. 맥 라이언이 분한 주인공 프래니는 영문학자로서 혹은 속어를 연구하고 성적인 은어를 입에 담지만, 그녀의 욕망은 초자아에 의해 모순적으로 깊은 곳에 잠겨 있다. 여성은 스스로의 욕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 속에 묶여 있다. 이러한 프래니의 욕망이 들어 가 있어 굳게 잠겨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 준 열쇠는, 뉴욕 뒷골목의 어느 작은 바에서 우연히 훔쳐 보게 된 오릴 섹스 장면이다. 프래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화면 곳곳에 배치된 섹스절이라는 장치처럼 예의 오릴 섹스는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과 프래니의 욕망을 설명하는 복선이다. 프래니는 영화 속에서 자위를 하고 관객은 경악을 하지만, 여성의 충분히 일상적인 섹슈얼리티 분출을 교묘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편견들을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방법을 통해 영화는 진실에 접근한다.

2 The future's not ours to see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내 나이 아주 어릴 때)
I asked my mother, (어머니께 물었어요)
What will I be? (난 커서 뭐가 될까요?)
Will I be pretty? (내가 예뻐질 수 있을까요?)
Will I be rich? (부자가 될까요?)
Here's what she said to me,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Que sera, sera, (케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되는 대로 될 거야)
The future's not ours to see,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내가 자라서 사랑에 빠졌을 때)
I asked my sweetheart, (난 내 연인에게 물었어요)
What lies ahead?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Will we have rainbows? (무지개 같은 날들이 될까?)
Day after day? (날마다?)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내 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Que sera, sera, (케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되는 대로 될 거야)
The future's not ours to see,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naver

느린 템포로 스산하게 흐르는 도리스 데이의 [Que sera sera]는 영화 전체의 심상을 관통한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장르는 스릴러다. 그러나 영화가 주는 공포는 찾을 수 없는 범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심리의 흐름에 있다.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 자체가 한 편의 스릴러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 여자가 살해되고 일상은 부서진다.

에로스(Eros)는 풍요의 남신 포로스와 궁핍의 여신 페니아의 아들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사랑의 욕망은 언제나 부족(결핍과 갈망의 이중의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풍요롭다는 것은 사랑에 동반되는 충분한 감정을 의미한다.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형사 말로이를 사랑하게 되는 프레니를 연기한 맥 라이언은 사랑이라는 감정 혹은 사건 이후의 불안하고 미스터리한 심리를 매우 훌륭하게 연기했다. 또한 에로스는 타나토스(Thanatos)의 곁에 누워 있다. 영화 속에서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시종일관 공존하며 영화를 지배한다. 스릴러라는 형식에 알맞게 죽음의 이미지가 영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한편, 다른 한 축에는 이에 대응하는 성의 이미지가 존재한다. 프레니는 집으로 오는 어두운 뉴욕 뒷골목에서 피한에게 급습당하고 나서 죽음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그녀는 연쇄 살인의 피해자를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당사자다), 이러한 공포는 오랫동안 섹스를 하지 않았던 그녀가 말로이 형사와 섹스를 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프로이트를 빌리자면 사랑 혹은 성애를 뜻하는 에로스는 또한 생의 충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기 파괴 혹은 죽음 충동(타나토스)에의 위협 이후에 자기 보존의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행복했다고 믿고 싶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아버지의 변심으로 인해 어머니의 자살로 끝이 났다. 프레니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욕망할 수 없었던 까닭은 기억으로 인한 상처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빙상 스케이트날은 미끄러져 어머니의 몸을 잔인하게 도막낸다. 프레니는 늘 이러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두렵다는 것. 도리스 데이의 [Que sera sera]는 따라서 원래 템포보다 훨씬 느린 템포로 연주되고, 원곡의 발랄함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여운만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귓가에 맴돈다.

3 "지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믿음이다"

"인간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행할 때일수록 기쁨에 넘쳐, 철저히 악을 행한다."

- 파스칼 [광세]

중세 시대 마녀 사냥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매일 밤 악마의 집회 사바스에 참석해서 악마를 숭배하는 마녀들이 공동체 내에 존재하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결국 집단적 광기로 이어져 30~900만 명의 인구를 화형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악마를 섬기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은 당시 종교전쟁, 30년 전쟁, 악화되는 경제상황, 기근, 페스트, 전염병 등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사람들은 연속된 불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불순한 사람들인 마법사와 마녀의 불길한 행동에서 찾아냈고, 주로 마녀로 지목된 대상은 혼자 사는 유복한 여성들이었다(재산을 탈취할 구실이기도 했다). 성경에서 보여지듯 여성은 원죄가 있는 동물이었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두려움을 자아내기 때문이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믿음은 이렇듯 종종 분별력을 잃게 한다.

[In The Cut]에서 프레니가 한 남자와 파란 손톱을 가진 여자의 오일 섹스 장면에서 훔쳐 본 것은 비단 잠재된 욕망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기도 하다. 여자는 살해되고 남자는 아마 연쇄 살인의 범인일 것이다. 그녀가 기억한 문신은 말로이의 손목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따라서 프레니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는 의심은 마저 지우지 못한다. 그녀의 심리를 충실히 따라가는 영화는 곳곳에 말로이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장치를 설치해놓고 관객을 혼란에 빠뜨린다. 말로이가 보여주는 모든 사랑의 표현은 앙금처럼 남은 의심의 찌꺼기들 때문에 프레니에게 있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는 범인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범인이 누구인지 관객으로부터 추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로이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즉 '믿음'만을 겨냥해서 장치를 풀어놓았을 뿐이다. 프레니의 심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말로이는 범인으로 임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오일 섹스에서 보았던 문신, 피한 급습시에 분실한 팔찌, 말로이의 가족에 관한 거짓말 등의 단편적인 '이미지'들은 프레니의 불안한 상황과 맞물려 그녀의 (말로이가 범인이라는) 믿음을 가중시킨다. 결국 유일한 찌꺼기자 친구였던 이복 동생 역시 연쇄 살인의 피해자가 되자 프레니는 말로이를 범인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를 묶어 놓은 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로이의 동료 형사를 따라 나서지만, 그가 바로 실제 범인이었고 프레니는 입고 있던 말로이의 외투 속에 들어 있

Movie

던 총으로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난다.

0 Que sera sera

프레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 묶어 두었던 말로이의 곁에 가서 눕는다. 음악이 흐르고 엔딩 크레딧이 오르고 눈물이 허벅지 위로 떨어졌다. 끝내 버리지 못했던 '믿음'으로 인해 관객은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지만, 프레니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주위 공기에 온통 묻어 있었던 죽음은 사라졌지만, 이후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Comic Book

아즈망가 大王

찌끼"

(스포일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스포일러라는 게 별로 있을 수 없는 만화이기도 하지요)

책모서리가 달도록 읽은 책 - 이라고 하면 정말 몇 권만이 손가락 안에 꼽히겠지만 아즈망가 대왕에 있어서는 '이거야말로!' 라고 해버린다. 4권의 책을 책꽂이에 쏙쏙 꽂아두면 흐뭇한 마음이 그만이다.

'아즈망가 대왕'

아즈망가는 분명히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있으면서도, 내어놓는 형식은 4컷 만화이다. 간혹 수학여행이라든지 하는 주제를 잡아서 주옥 그릴 때도 있다. 아마도 작가 마음인 듯하다. 만화 제목이 아즈망가 대왕인 것도 역시 작가 마음대로인 듯한데, 아즈마(작가의 이름) + 망가(만화의 일본어) + 大王, 뭐 이런 조합인가보다. 응,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 - 기본적으로 이 만화, 유쾌하다. 인물 간 갈등을 세밀하게 다루거나 '죽어도 이루어야 할' 목표를 쫓는 인물을 그린다거나 하다못해 연애를 소재로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저 아하하, 와당망, 하는 분위기랄까? 그러면서도 자꾸 보고 다시 보는 건 그 안에서 나랑, 내 주위의 여자친구들, 특히 즐거운 일들이 태굴태굴 구르고 있어서인 것 같다. 아즈망가 대왕이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 사이에서 훨씬 인기가 많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이 때문일 것 같은데 나의 경우, 한동안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들의 그룹에서 누구는 치요, 누구는 토모니 사카키니 오사카니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춰놓고 즐거워하는 게 유행 아닌 유행이었기도 했다. 아, 요약하자면 아즈망가 대왕은 '여고문화의 정점'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배경은 공학인 게 재밌는데, 여기에서 남자애들은 거의 아무 역할이 없을 뿐더러, - 토모가 가슴 사이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을 때 얼굴을 붉히려 있는 배경이 된다는 정도? - 얼굴도 그냥 대략 똑같이 그려버린다.

'천재소녀' 치요, 카리스마(+ 후까시) 넘치고 운동 잘하는 사카키, '후쿠' 여고생 토모, 어딘가 상상 영역 바깥에 맴도는 오사카, 다이어트에 불태우는 요미, 이 다섯명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선생님 두명, 사카키를 시모하는 카오리, '여고생이 좋아'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는 키무라 선생 등이 주변 인물들로 있다. 카오리를 보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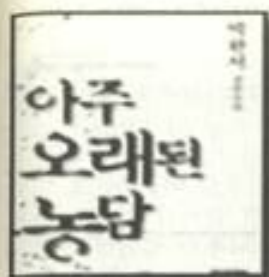


중, 여고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멋진 언니에게 열광하는 아이들이라든가 하는) 키무라를 보면 매일 욕했던 소위 '변태 선생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반에서 싫은 남자애를 욕하면서 수다떠는 선생님과 학생, 플스 게임 씨디를 사느라 지각하는 선생님 캐릭터를 보면서 아, 이런 여자 선생님 있으면 진짜 유쾌했겠다, 하고 광광한 고등학교 때를 떠올리기도 한다. 수험

을 앞두고 두근두근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 응원하는 친구, 노래방에 놀러가는 친구들, 수학여행 아침에 눈을 번쩍 뜨는 친구, 일상이 어찌나 속속 녹아 있는지,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는 비슷한 면이 많아서 여기에서도 공감감이 되는 듯하다. 여자애들 집단의 관계 맺기의 양상도 그렇고) 사실상 각각의 캐릭터들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볼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태굴태굴 구를 수가 있는 거다. 뭐랄까, 아즈망가를 읽고 있는 애가 웃지 않으면 옆에서 수근수근, 어떻게 이걸 보고 안 웃을 수가 있냐, 진짜 신기한 감수성인데, 수근수근, 이 가능해져버린다. 뭐, 결국 계속 재밌다. 의 예찬론을 펴고 있는 판이지만 워낙에 '학원물판'에서 뽐박질하는 남자애들, 똑같은 여자애 캐릭터들에 식상한 판에 아즈망가는 특이한 등장이다. 또 어쩐지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면 뭔가 기운 넘치는 그런 느낌보다는 항상 뭔가 불안하고, 우울한 색을 가지는 것들이 대부분인 사이에서도 뭐는 것이다.

자, 어쩐가? 읽어보지 않으려나? (광고글이 아닌데 말이죠) 기왕이면 사다가 방에 두고 여러 번 보기를 권한다. 사실, 4컷이 대부분이라 아무 페이지나 펼치고 읽고 또 읽다가 말아도 상관없는 구성이기도 하다. 아, 나의 경우 - 화장실에 갈 때 매우 애용하는 편이다. 해해, 아, 갑자기 캐릭터 이름 붙이고 놀았던 친구 녀석들 무리가 생각난다. (참고로 애들이 나한테는 요미라고 그랬다. 들뜬 거 숨기고 쿨한 척 체수 없게 군다, 정도의 뉘앙스이다. 재밌는 건 또 다른 집단에서는 나를 절대 토모라고 한다는 점이지만, 아, 이 놀이 꽤 재밌다. 한 번씩 해보시길.) 아, 음, 보고 싶다.

p.s : 솔직히 말해 나는 학원물을 무지 좋아해서, '상남 2인조'나 '오늘부터, 우리는'이니 하는 것들을 즐겨본다. 구려구려, 씹어씹어, 하는 거랑은 또 분열된 자아가 'GTO'까지, '니나 잘해'까지 보게 되는 것. 아 뭐,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분열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현실이니 어찌겠냐고, 그 와중에 아즈망가 대왕은 대략 감동의 물결.



Book

아주 오래된 농담

가부장제, 그 무거운 굴레에 대하여

살아보자

가족은 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친인격적 관계를 맺는 1차 집단의 대표적인 예다. 매우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처럼 설명되어있지만, 사실 이 문장 속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장기적'이라 함은 폭은 감동과 미움이 유령처럼 구성원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의미고, '친인격적'이라 함은 상대방의 모든 단점을 온 몸으로 체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일 무시무시한 건 바로 '1차 집단'이라는 말인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집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스크린 2003. 5월호>

가족(역사적으로 '가족'은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지만, 여기서는 '가부장적 가족'의 의미로 한정하겠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마스함,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끈적끈적한 혈육의 정..... 이것은 가족의 보편적인 이미지이며,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족과 결부시키도록 '교육받아왔다' 여기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 남편은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린다. '가족만 없다면' 벌써 때려 쳤을 일상을 '(예쁜)자식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그는 가족이 기댈 수 있는 기둥이므로 언제나 튼튼하고 믿음직스럽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면 기댈 곳이 없다. 단지 술, 담배로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푸는 것 밖에는. 아내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니든 간에) 가사일과 자녀 양육의 최종 책임자라는 짐을 지고 있다. 자신의 자식의 양육, 혹은 남편 내조를 위해 자아실현을 포기하는 것은 당장은 '아름다운 희생'으로 추앙받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신에게 남는 건 없다. 그 반대급부로 성공한 남편과 잘 자란 아이들에게 짐작하게 된다. 자기가 세월을 바쳐 온 것은 남편과 자식밖에 없으니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행여나 양육이나 집안 일 보다 자기성취에 더 신경을 쏟으면, 이기적이라니, 무책임하다느니 하는 비판이 쏟아진다. 가끔 신문에 '전업 주부 자녀가 서울대 입학 비율 높아'라는 기사라도 나올지라도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기 보다는 부모의 또 다른 모습 정도로 취급된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가족을 위한, 길을 택하게 된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학습하며, 장남은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부담에, 딸은 시집'가서'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인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이 모습은 다시 반복된다(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족을 상정해 본 것일 뿐이며, 가정 폭력, 자녀 학대 등의 문제를 파고들자면 끝이 없다).

당신의 '가족'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1. 외로운 가장

마흔다섯 평짜리 그의 아파트는 방이 네개다. 영묘를 시집보내고 나서 남은 식구들 삼대 다섯 식구다. 제각기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나면 영빈만 방이 없게 된다. 영빈은 아내와 같이 쓰는 안방을 제 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건 아내가 아

내의 취향에 맞게 꾸미고 뭐가 어디있는지 알기 쉽게 질서를 잡아놓고 남편을 맞아 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방이다. 아내는 혼자 있고 싶을 때 영빈더러 조금 나가있으라고 내쫓지만 영빈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스스로 걸어온다는 사실만 갖고도 명백해진다. 영빈의 의식 속의 삼대는 가장 안정된 가족 구도고 많은 식구도 아니다. 그러나 70대와 40대와 30대와 10대가 한 지붕 밑에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태로운 구도인가. 그다 모르고 있다뿐 식구들은 끊임없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며 겨우겨우 모여 살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겠다. 영빈은 그 안의 균형이 아슬아슬해 질수록 가족이라는 본래의 외피는 견고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안의 잠음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싫지만 밖으로부터 균형이 위협받는 것도 싫었다. 영빈은 가족 안에 자신의 방이 없는 대신, 자신이 가족을 한울타리안에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 외피라고 생각했다.

책의 주인공 '영빈'은 전형적인 가부장제 가족의 '가장'이다. 막강한 권위를 휘두르는 전통적인 권위적 가장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그렇고 그런 가장들처럼 가정의 생계에 대한 부담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뚝뚝 뭉쳐있다. 그는 대형 병원의 실력 있는 의사이다. 하지만 의사의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집 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떠맡아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족 안에는 '가장'인 그를 위한 공간이 없다. 가족끼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가 들어오면 어딘가 어색해진다. 그가 가족을 책임지느라 바깥에서 걸도는 동안, 그를 위한 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그는 가족 안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알력관계를 감추는 껍데기일 뿐이다. 가족을 책임진다는 '가장'은 정녕 자신의 문제는 가족 밖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현금과의 외도로 이어진다.

또한 가족은 결코 화합의 공간이 아니다. 각각 다른 인격체의 사람이 같이 사는 데, 어떻게 분쟁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오래 살다보면 서로에게 적응하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적응'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이것을 '해결'이라 칭하지만) 크고 작은 분쟁들은, 속으로는 끓아터진 상처로 남아,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시 고개를 쳐든다. 하지만 그것을 가족 내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완벽한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서 개인적으로 삭히거나, 바깥으로 표출해야 한다.

2. 차라리 애인이 되겠어! - 아내와 남편, 그 기묘한 관계

그녀는 이제 따뜻한 물처럼 저항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주장 없이 그의 욕구에 순종했다. 그가 허전할 때는 알아서 빈 곳에 스며들어 충만하게 해주었고, 추위를 탈 때 녹여 주었고, 외기소침할 때 띄워주었다. 언제부터 우리 관계가 그렇게 변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나쁜 년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고 못된 여자를 물처럼 순종적으로 길들였다는 걸 생각하면 절로 으쓱해졌다. 그런 만족감 말고도 현금이 필요한 것은 현금이내서는 한 남자 노릇만 하면 되는데 집에서는 우선적으로 아들 노릇, 다음으로 아빠 노릇, 그 다음이 남편 노릇인 일인 다역이 바깥과 피곤했다.

이 책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으로 맺는 가족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그의 애인으로 남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법이다. 결혼이라

는 것이 안정성과 '사랑'을 맛바꾸는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쪽을 택하겠
다. 영빈이 아내에게 정을 못 붙이는 것은 애초에 그가 현금을 사랑해서 일까? 어찌
어찌 상황에 밀려서 사랑하는 현금을 제쳐두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어서 일
까?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현금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비록
외도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가부장제라는 구조 속에서 현금에게 전정으
로 기댈 수 없을 것이고, 그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을 것이
다. (여담이지만 여자를 순종적으로 길들였다고 기뻐하는 저 마초스러운 사고방식
은 어쩌나 전형적인 가부장인지...; 두 살림 하면서 합리화 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일까?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더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 매몰되면 사랑하는 A와 B가 아니라 가부장제 속의 남편과 아내로 변모되고, 이것은 소외를 가져온다.

3. 가족의 '신화'를 깨자

이 책에서는 가장의 부담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가장만이 가부장제의 희생자는 아니다. 영빈의 아내는 끝없이 아들을 출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정작 당사자인 영빈은 아들에 관심이 없지만, 시어머니의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그녀는 불임클리닉에 다니며 딸을 2번이나 지운다. 그녀는 영빈이 아들을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들의 출산으로 곁도는 영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남이라는 자리가 버거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나가버린 영빈의 형도, 가문의 체면에 치중하느라 아들을 잃고만 영묘의 장인도,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죽음을 택한 치킨 박(작가는 치킨 박이라는 인물을 당당하게 '자기 의지'로 죽음을 택한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의지라기보다 가족에 대한 부담에 짓눌린 가장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은 모두 가부장제의 희생자이다.

소설 내내 여러 가지 가족들을 대비시키며 가부장제의 희생자들을 그려내던 작가는 마지막에 영빈 형의 입을 빌어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늘어놓고 끝을 낸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개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운 현금이 어딘가 비어보이게 그려진 것 역시 작가의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무너져 내린 가족의 효용 논리를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결국 개인은 '가족을 위한' 인생을 산다는 말 아닌가?

이제는 슬슬 가족의 신화가 깨져야 할 때이다. (가족 관계 자체를 깨자는 말은 아니다) 가족 제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의 권력구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가족에는 사람이 같이 살면서 쌓이는 정일 뿐, 특별히 '가족'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을 절대적인 가치로 떠받들고, 그 존재 자체에 막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일 뿐이다. 가족은 언제든지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고, 다른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얼마든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오늘도 버스에서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류의 광고를 들으면서, 피식 웃었다. 아직도 멀었구나.



재현

Music

drybaby



노영심. 그녀만큼 흑백사진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 흑백으로 박혀진 옛날 사람같이 딱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뛰어나오는 법 없이, 편편한 지면에 붙어서 다사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탐독하던 소설 책장 구석에 끼워두고, 책장을 정리할 때나 한 번 푹 뛰어나와 생각에 잠기게 했던 사람. 그녀의 음악도 그런 흑백 이미지를 담아있다고 생각했다. 옛날 교실 뒤편에 걸려 있음직한 작고 뿌연 거울처럼, 그녀를 푹 담아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흑백 실상들이 맑은 햇빛을 받아 되살아나는 것처럼 눈부신 색깔들로 뛰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구성한 음들과 내쉬는 리듬 하나 하나가 내게 신선한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착함이 새로운 치료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 언제였던가. 그녀 역시 내게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내게 언니가 있었다면 그녀와 같은 모습이길 바랐다. 내가 아는 곡이야 변진섭이 부른 '희망사항'이나 그녀가 부른 '그리움만 쌓이네'같은 유명한 곡 정도였고, 그녀가 한창 방송에 자주 나올 때 그녀가 진행하는 음악회 프로그램을 몇 번 보았을 뿐이지만, 손을 모으고 앉아서 어수룩하게 말하던 모습에, 정성껏 피아노의 맑은 울림을 만들어내던 열중한 표정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나보다. 처음으로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랐던 때. 하지만 그녀를 푹 담은 꾸밈없고 소박한 음악들이 왜 내 귀에 꽂히지 않았나. 하는 물음이 뛰어나오면, 그 때 내 귀가 그리 섬세하지 못했다는 말 정도를 어설픈 변명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듣고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었건. 그녀의 음악, 한 바퀴 돌아서야 만난 것들이 내겐 새삼스레 소중한다.

그래서 그녀의 이미지, 그녀의 히트곡, 등등 이것저것 말로 늘어놓기 이전에, 지금까지의 그녀의 음악 작업들을 진지하게 들여보면서 깊숙이 느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 노영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은 새로운 경험일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1989년에 '희망사항'의 작곡가로 데뷔한 그녀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음악작업을 하며 자신만의 분위기를 발전시켜

Music

온, 자기 자리를 튼튼하게 지켜온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이다. 지난 10년간 정규앨범 3장과 연주앨범 2장, 그리고 영화음악 O.S.T.에 작곡가나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것이 4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뮤지션들의 앨범 작업에 많이 참여하고, 꾸준히 피아노 연주회도 열고 있다. 다양한 작업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갔다. 우선 양적으로 꽤나 방대하다.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더라도 기분에 따라 한 장씩 들어보기를 권한다.

그녀의 작업의 중요한 축은 영화음악이다. 그녀의 이름이 작곡가, 음악감독란에 새겨져 있는 네 장의 영화음악 앨범은 '미인'(2000), '꽃섬'(2001), '그녀를 믿지 마세요'(2004), 그리고 '아홉 살 인생'(2004)이다. 음악적인 역량도 탄탄하지만, 그녀의 능력이라면 영화 속 내러티브를 마음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것. 등장인물들의 심리상태를 몇 번이고 끄적거리며 공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등장인물들의 여정을 따라가는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보다 쉬운 공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상하고, 음악만 들으면 언제라도 그 영상을 돌이켜 머릿속에서 화려락 펼쳐놓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놀랍다. 거기에 더해, 그 음악을 타고 내 기억의 실타래를 더듬어 찾아가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맙다. 그것은 그녀가 음악작업을 하는 방법과 마음씀이 딱 그렇기 때문일 것이다.

토요일 오후 봄바람에 하늘거리던 교실 커튼 자락처럼... 감독님은 이 영화가 그런 음악이 있으면...이라고 말했다. 모호하지만 참 정확한 표현, 음악은 그 느낌을 하나하나 밟으며 걸어 나갔다. 신기하다. 내게도 있는 그 토요일 오후 햇살의 기억은 아득하고 거짓처럼 선명하다.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의 소리, 버릴래야 버려지지 않는 추억의 기질들이 주제곡 하나씩을 차지하였다. 거기서 실타래처럼 이어 나온 작은 에피소드까지 모두 다 '나'이면서 '우리'이기 까지였으면 했다. <객석> 2004년 4월호

"당신이 영화 '아홉 살 인생'에 선사해 준 이 노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가를 맴돕니다. 영심씨와 본격적인 음악 작업을 시작하던 날 제 마음은 기다긴 촬영으로 많이 지쳐있었지요. 하지만 당신이 작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에너지를 얻고 이 영화를 시작하던 날의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건대 내가 '아홉 살 인생' 작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너무도 고맙게 간직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객석> 2004년 4월호

'아홉 살 인생'의 윤인호 감독은 음악작업을 시작하던 날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 날, 노영심은 감독을 집에 초대해 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끊임없이 피아노의 테마들을 연주하며 감독으로 하여금 영화의 느낌을 음악에서 찾아내도록 했다고 한다. 감독은 노영심의 음악을 따라 영화의 느낌을 찾는 동안, 음악 작업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지쳐있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을 터다.

그녀의 음악작업의 또 하나 중요한 축은 '피아노'이다.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피아노를 연주해 온 그녀이지만, 데뷔 시절 여러 가지 일을 접다가, 진정 하고 싶은 것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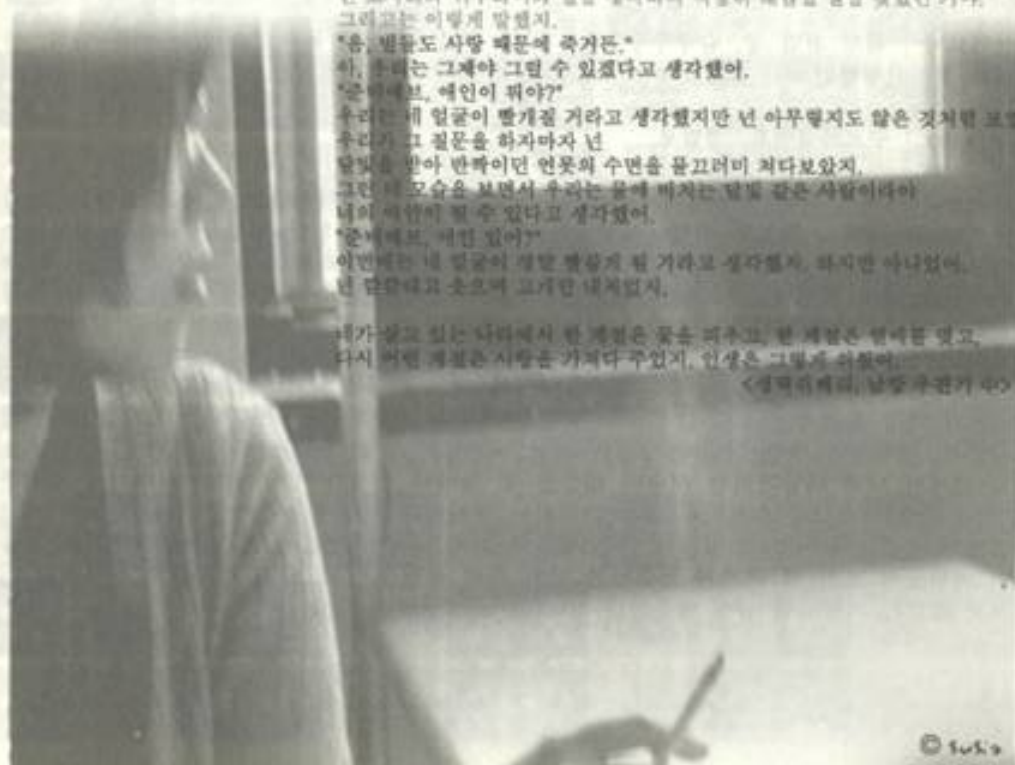
을 찾아 돌아온 것이 역시 피아노라고, 그녀는 말했다. 얼마 전 음대 강의실에서,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파란색 머리와 두건과 주홍색 치마를 입고 개구진 소녀처럼 들어온 그녀가 연주에 열중한 모습은 조금은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변화에 알맞은 음악을 그때그때 연주해주었다. '분위기가 -기 때문에 이 음악을 연주해드리고 싶다', '나의 기분이 -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즐겼으면 한다', 라는 자상한 코멘트가 관객으로 하여금 그녀와 그녀의 연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차분하지만 완전히 몰입해서 몸을 움직이며 건반을 누르던 모습도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1시간 남짓 되는 그 시간동안은 비루한 마음이 평소 같지 않았다. 앞에 서면 착해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 눈꼬리를 늘어뜨리게 되는 순간들처럼, 벚꽃이 지는 봄의 짧은 순간에 학교를 걸을 때처럼, 순간순간 마음이 기뻐지고 풍부해지고 물이 들었다. 그녀가 '이 음악이 등장인물들의 인생의 앞길에 울리는 찬가였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을 때처럼, 내 바로 앞에서 그녀가 연주하는 음악은 마치 날 위한 찬가인 것만 같았고, 찬가까지는 아니어도 날 위한 위로와 응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노영심의 음악은 그런 식이다. 주로 소박하거나 잔잔한 음악들을 피아노로 한 음한 음 짚어주지만,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침통하거나 쓸쓸한 분위기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듣는 사람에겐 묘한 위로와 공감을 준다. 그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애정이 음악에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항상 찾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바짝 메달라버렸을 때 그에 대한 치유책으로 가끔 찾는 음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가끔 만나도 기가 막히게 말이 통하는 미더운 언니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할까,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

자신의 재능을 눈앞에 바로 들이대거나 떠벌릴 줄 모르는 그녀는, 그냥 구석에 앉아서 자신만의 계획들을 하나 둘씩 만들고 실현해나갈 뿐이다. 말없는 평범한 아이인 줄만 알았던 그녀는 시간이 흘러 만나니 씨익 웃으며 음악들을 내어준다. 흑백사진의 착하게 웃기만 하는 여자아이는 음악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노영심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신의 말꼬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그녀의 힘인 것 같다. 다른 작가들과는 또 다른, 뿌듯하고 웅골차게 쌓아올려진 힘. 그 힘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다. 작게만 돌리던 것이 점점 깊고 강해지더니,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와 박히는 게, 내게는 새로운 치료와 자극이 되었다. 심장 깊은 곳까지 신선한 애정이 가득 차는 기분을 주는 음악. 이제 그녀의 음악을 듣는 것이 재미있고 기쁘다.

MEMO



"준비해봐, 말해줘, 사람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겠어?"
너는 책을 읽다 말고 입을 꼭 다문 채 골똘이 깊은 생각에 빠졌어.
넌 고사리와 귀뚜라리와 벌을 생각하며 적당히 대답할 말을 찾았던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
"음, 벌들도 사람 때문에 죽거든."
아, 준비는 그게야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준비해봐, 애인이 뭐야?"
우리는 내 얼굴이 빨개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
우리가 그 질문을 하자마자 넌
말뭉치를 알아 반박하던 언뜻의 수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지.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물에 빠지는 달빛 같은 사람이었다
네가 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준비해봐, 애인 있어?"
이번에는 내 얼굴이 정말 빨개질 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넌 할말내고 웃으며 고개만 내저었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한 계절은 꽃을 피우고, 한 계절은 열매를 맺고,
다시 어떤 계절은 사람을 가져다 주었지. 인생은 그렇게 이뤄져.

<생각리퀘르, 남달라주면 4>

편집후기

수지아 : 태연하게, 울고 있는 자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감수성의 차이. 차이를 느낄 수 없음을 부끄러워하세요.

야생씩가자 : "자신이 예전에 썼던 글을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완전히 고쳐쓰는 일은 옳거나 현명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그 옛 글을 지워버리려 하는 것과 같은 일로서,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거쳐 왔어야만 했던 그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일이다. 오히려 자신의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사실과 그 변화의 과정을 증거로서 남겨놓는 것이 여성주의적인 방식인 것이다." Ursula Le Guin 내 글을 읽어주는 여러분 고마워요.

Dnool : 당신과 당신과 당신과 또 예전의 당신들과 나.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인지 발전인지.

썬끼 : 조금씩 크는걸까? 더 많이 힘을 내고 싶다. 활동력활동력. 정신없는 3월이 또 가고, 의욕이 불타는 4월이 다시. 뭔가 해 봐야겠다.

준코 : 나는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일까. 너를 위해? 아니면 나를 위해? 아니면?

Sakana : 실제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맨날 괴로운 얘기만 쓰게 되는지! 정치성을 가져야 하느니라, 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나보다. 정체성에 기반한 쓰기 심지어 + 정치성이라니 그건 필연적인 걸까. 정말? 그만!

살아보자 : 께도 전임 중. 슈우우우우웅~ 정말 간만에 '나'로 돌아오고 있는 기분 만끽. 아직은 현재진행형인 '나' 찾기

drybaby :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sseam : 어째서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에서만은 말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고 건방짐을 떨었던 걸까. 세상에는 예전에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끄집는 것보다는 헤쳐나가야 할 더 중요한 문제들이 쌓여있다고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그런 기억들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기억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기억이 나에게서 도망갔을 뿐이다. 그러니 참 오래도 된 나쁜 기억의 끝만 남은 일기와, 아침 서늘해 앉으면 정전기를 내며 이마에 부딪쳐오는 그림들을 견뎌야 할 때, 나는 몇 년이나 그래왔듯이 다시 어리둥절해질 밖에. 기억의 어느 부분이 시작이며 어느 부분이 끝인지, 피해가 가장 물리적인 모양과 무게로 발돋움 했었을 때조차 나는 왜 박힌 도끼를 빼지 않았는지, 이렇게나 추한 기억의 주인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놀라운 요약 앞에서 나의 머뭇거리는 서술의 대상은 또 얼마나 못생긴 것이 될지. 이야기에 실패한 것은, 원래는 스스로 수천만이 공히 간직하는 첫사랑의 환영이나 등장할 법한 걸때이 되고 싶었던 욕설 때문이었고, 지금은 다른 이들의 고백 속에서 옛일에 허우적대는 화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일 때 독자가 느낄만한 어떤 류의 우월감을 내 글의 독자에게 선사하고 싶지는 않다는 비뚤어진 심성 때문이다. Excuse me, excuse me.

사랑스러운 쥬이쌍스 후원회원들

띠끄, 루나씨, 고태우, 양진, 이준화, 조효진, 민영, 경진, 서범석, 민주, 꾸꾸, 잔디, 김자영, 능구렁이, 감자, 향재, 이철민, 박찬성, 이해원, 이선민, 송설대 총학, 신우, 한승환, 석순, 류재환, 정정현, 소윤, 이진호, 이스트, 안승혁, 신끼, 박다인, 외눈박이, 최은영, 서지훈, 이황효성, 김영미, 엄지현, 강동호, 봉봉, 다알, 신윤정, 이민경, 김예자, 김희영, 지화자, 강윤소, 심현진, 김유정, 이성민, 김예진, 목승원, 설선훈, 노연희, 라은정, 김유진, 박현, 한민정, 양세아, 이소연, 차영래

-이름이 빠지거나 후원회원이 되실지 1년이 넘으신 분은 다시 연락주세요-

쥬이쌍스 웹을 찾아주세요

쥬이쌍스의 홈페이지 www.jouissance.pe.kr에서는 종이매체와는 다르게 여성주의 행사와 기획, 문화 비평, 보도 등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쥬이쌍스의 지난 글들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는 격월로 발간되는 종이 매체입니다. 쥬이쌍스를 집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쥬이쌍스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격월로 발간되는 쥬이쌍스를 보내드리고 쥬이쌍스 행사 때마다 마련되는 각종 책이나 인쇄물, 지디를 드립니다.

다음 계좌로 1만원을 입금해주시면 1년간 후원회원 자격을 받게 되며 발간되는 쥬이쌍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는 분은 쥬이쌍스 게시판이나 jouissance@jinbo.net으로 입금했다는 것과 이름, 주소들을 알려주세요.

입금계좌: 농협 079-02-866033 예금주 김은미

후원회원비는 다음 호 쥬이쌍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요!

Jouissance

web: <http://www.jouissance.pe.kr>

e-mail: jouissance@jinbo.net

만든 사람들

편집장: 수시아, 야생싸가지

편집위원: drybaby, sakana, 썸, sseam, Dnool, 살아보자, 준코, 시드, 시마모토

표지그림: Dnool

책 디자인 및 편집 : 수시아

웹 작업: 수시아, Dnool

펴낸 곳: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Jouissance 편집 위원회

주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310-1호

★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인쇄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땅을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백만 개
의 키스를!